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2  
0  
0  
9

개정

교육과정

5

|

6  
학  
년

미술교과서

분석

이  
은  
진

2  
0  
1  
7





석사학위논문

2009 개정 교육과정 5-6학년 미술교과서  
분석: 양성평등교육의 관점에서

2009 Revised Curriculum Grades 5-6 Art  
Textbooks Analysis: From the perspective  
of gender equality education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초등미술교육전공

이 은 진

2017년 12월





석 사 학 위 논 문

2009 개정 교육과정 5-6학년 미술교과서  
분석: 양성평등교육의 관점에서

2009 Revised Curriculum Grades 5-6 Art  
Textbooks Analysis: From the perspective  
of gender equality education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초등미술교육전공

이 은 진

2017년 12월





2009 개정 교육과정 5-6학년 미술교과서  
분석: 양성평등교육의 관점에서

2009 Revised Curriculum Grades 5-6 Art  
Textbooks Analysis: From the perspective  
of gender equality education

지도교수 임 춘 배

이 논문을 교육학 석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초등미술교육전공

이 은 진

2017년 10월



이 은 진의  
교육학 석사학위 논문을 인준함

심사위원장 인

심사위원 인

심사위원 인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2017년 11월

## 목 차

국문 초록 .....	iv
<b>I. 서론</b> .....	1
1. 연구의 필요성 .....	1
2. 연구의 범위와 방법 .....	2
<b>II. 이론적 배경</b> .....	4
1. 양성평등과 양성평등교육의 의미 .....	4
2. 양성평등적 관점에서의 교육과정과 교과서 .....	6
<b>III. 분석 기준 및 교과서 분석</b> .....	14
1. 분석 기준 .....	14
2. 교과서 분석 .....	17
<b>IV. 요약 및 결론</b> .....	43
1. 요약 .....	43
2. 결론 및 제언 .....	44
참고 문헌 .....	46
<b>ABSTRACT</b> .....	48

## 표 목 차

<표 II-1> 여성해방이론의 관점에서 살펴 본 교육과정 분류	7
<표 II-2> 양성평등적 관점에 기초한 교과서 심의기준안 지표 항목	11
<표 II-3> 교과서 내 성차별적 요소	12
<표 II-4> 독일 교과서 검정 항목	13
<표 III-1> 양성평등적 관점에서의 교과서 분석 기준	15
<표 III-2> 교과서별 등장인물의 성별 분포(사진)	17
<표 III-3> 교과서별 등장인물의 성별 분포(그림)	18
<표 III-4> 학습도우미(비상교육)	21
<표 III-5> 학습도우미(아침나라)	22
<표 III-6> 학습도우미(천재교과서)	23
<표 III-7> 체육활동을 하고 있는 인물의 수	25
<표 III-8> 직업군의 성별	27
<표 III-9> 작가 성별 분포(금성)	29
<표 III-10> 작가 성별 분포(비상)	31
<표 III-11> 작가 성별 분포(아침나라)	33
<표 III-12> 작가 성별 분포(천재교육)	36
<표 III-13> 작가 성별 분포(천재교과서)	38

## 그림 목 차

[그림 Ⅲ-1] 양성평등 교육 내용(비상교육) .....	40
[그림 Ⅲ-2] 양성평등 교육 내용(천재교과서) .....	41

## 국 문 초 록

# 2009 개정 교육과정 5-6학년 미술교과서 분석 : 양성평등교육의 관점에서

이 은 진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초등미술교육전공  
지도교수 임 춘 배

양성평등이 중요한 사회적인 이슈로 논의되고 있는 시점에서 미술교육을 비롯한 초등교육은 학생들이 건강한 성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회구성원으로 길러낼 의무가 있다. 교과서는 학교에서 주로 사용되는 교수·학습자료이며, 학생들의 태도와 행동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교과서를 양성평등적 관점에서 심의하고 제작하는 것은 학생들의 올바른 양성평등의식 형성에 중요한 요소이다. 그러나 양성평등교육에 대한 연구는 많이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양성평등적 관점에서 미술교과서를 분석하고 비판한 연구는 많지 않다. 따라서 본 연구는 양성평등교육의 관점에서 교과서 분석 기준을 세우고, 기준에 따라 2009 개정 교육과정에 의한 초등학교 5-6학년 미술교과서를 비교·분석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또한 교과서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교과서 개선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안하였다. 첫째, 교과서에서 등장인물의 성별특성이 다양하게 묘사되어야 한다. 둘째, 교과서에서 등장인물의 활동 모습이 성역할에 구애되지 않고 묘사되어야 한다. 셋째, 여성 작가의 비율을 남성 작가의 비율과 동등하게 반영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넷째, 성차별적인 상황을 제시하고 양성평등 의식을 개선할 수 있는 활동을 제시해야 한다.

이와 같은 개선 방향을 바탕으로 향후 개정될 교육과정에 의거한 미술교과서에서는 양적인 측면의 양성평등뿐만 아니라 질적인 측면의 양성평등에서도 발전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주요어 : 양성평등교육, 양성평등, 초등학교 5-6학년 미술교과서, 분석 기준



# I. 서 론

## 1. 연구의 필요성

미술교육의 내용을 선정할 때는 학생들의 인간 형성을 돕기 위해 학습자들의 심리와 특성에 어떤 미술 교육내용들이 적절한지, 사회가 학생들과 교육에 어떤 요구를 하고 있으며, 사회의 발전을 위해 어떤 교육내용이 적절한지를 기준으로 그 내용을 선정해야 한다(이규선 외, 2010, p. 52).

즉, 미술교육은 사회의 요구에 민감하게 반응하여 학생이 사회 구성원으로서 건강한 사고를 가지고, 그 사회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돕는데 그 목적이 있다. 현재 우리 사회는 수평적 다원주의 사회로 나아가는 양상이 뚜렷해짐에 따라 양성평등(gender equality)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으며(교육인적자원부[교육부], 2005, p. 1), 미술교육 또한 사회의 요구에 발맞춰 양성평등교육에 대한 내용을 반영해야 할 필요가 있다.

학교에서 실시되는 미술교육은 교육과정을 바탕으로 구체화되며, 교과서는 교육과정을 학생과 매개하고 대변하는 중요한 자료이다. 교과서 이외에도 교사들은 많은 교수·학습 자료를 사용하지만 학교에서 교과서는 가장 비중 있게 다루어질 뿐만 아니라, 국정 혹은 검인정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사회가 공인하는 지식을 담고 있다는 점에서 아동의 태도와 행동에 미치는 영향력이 크다(곽삼근 외, 2015, p. 133). 교과서에 내재된 계층, 성별에 대한 인식이 과연 학생들에게 영향을 미치는지 의문을 제시하는 시선도 있지만 학생들의 태도나 행동은 독서를 통해 변화될 수 있으며, 변화되는 태도나 행동은 주로 자기 이미지, 생활의 철학, 대인적 감정, 그리고 자신 이외의 사회적 계층이나 집단에 대한 이해, 사회 문제에 대한 태도 등으로 나타난다(Stitt, 1988). 교과서를 읽고 공부하는 것 또한 독서의 일환이기 때문에 교과서에 나타난 특정 집단과 계층에 대한 편협한 시각은 학생들에게 왜곡된 가치관을 심어줄 수 있다. 따라서 초등미술교육에서 양성평등교육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교과서를 양성평등교육의 관점에서 개발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고 할 수 있다.

최근 교육부에서도 양성평등교육 평가 지표 개발이나 양성평등교육 프로그램

개발 등 양성평등교육에 대한 지침을 개발하고 있고, 국정 혹은 검인정 과정을 거친 교과서들 또한 용어 및 삽화 등 교과서 구성에서 양성평등교육을 반영을 위하여 다방면으로 검토하고 있다. 그러나 교과서에서 다루어지는 지식은 많은 부분 특정한 시대의 특정한 집단의 이익과 입장을 대변하게 되는 지식 체계이며, 그 결과 계층이나 성별의 상충되는 가치를 종합적으로 공정하게 다루지 못하게 된다.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유교 정신 하에 성차별이 비판의 여지가 없는 도덕 윤리로 오랜 시간 자리잡아왔기 때문에 확고한 기준을 가지고 양성평등문제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으면 여성의 관점과 입장이 배제된 채 교과서를 생산할 가능성이 크다(김재춘·왕석순, 1999, p.57). 또한 미술교과는 문자보다 참고작품으로 구성되어 있는 특성을 가지고 있어 사회, 도덕과 같은 타 교과에 비해 양성평등교육의 관점에서 교과서를 분석하고 비판한 연구가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양성평등교육의 관점에서 미술교과서 제작·심의 시 반드시 필요한 기준을 제시하고, 이 기준을 바탕으로 현행 초등학교 5-6학년 미술교과서를 분석하여 차후에 개정되는 미술교과서가 사회의 요구를 반영한 교과서로 나아갈 수 있는 효과적인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 2. 연구의 범위와 방법

본 연구는 양성평등교육의 다양한 개념과 교육 내용에 내재되어 있는 성차별성에 대한 정의를 바탕으로 양성평등교육의 관점에서 초등학교 5-6학년 미술 교과서를 분석함으로써 미술교육이 함양해야 할 양성평등교육의 방향을 설정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교과서는 2009 개정 교육과정에 의해 검정된 5종(금성, 비상, 아침나라, 천재교과서, 천재교육)의 초등학교 5-6학년 미술교과서를 분석하였다.

구체적인 연구 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문헌 및 자료 연구를 통해 양성평등과 양성평등교육의 개념과 양성평등한 교육과정의 의미를 알아본다.

둘째, 선행 연구에서 제시한 양성평등적 관점에서의 교과서 평가 기준을 알아본다.

셋째, 선행 연구를 바탕으로 미술교과서에 특성에 맞게 양성평등적 관점에서의 교과서 분석 기준을 설정한다.

넷째, 설정한 분석 기준을 바탕으로 현행 초등학교 5-6학년 미술교과서 5종의 내용을 분석한다.

다섯째, 분석한 내용을 바탕으로 앞으로 미술교과서가 양성평등적 측면에서 나아갈 방향을 제시한다.

## II. 이론적 배경

### 1. 양성평등과 양성평등교육의 의미

#### 가. 양성평등의 의미

양성평등(gender equality)의 사전적 정의를 살펴보면, 성(gender)은 원래 타고난 남녀로서의 생물학적 성(sex)뿐만 아니라 남녀에게 부여된 사회적·문화적 의미까지 포함된 개념이다. 성(gender)은 모든 사회적 상호작용에 스며들어있는 성적(sexual) 특성으로서, 남녀구별의 사회적 구성체라고 할 수 있다(Biklen & Pollard, 1993, p.1; 심미옥, 추병완, 이주한, 서동엽, 2011, p.13에서 재인용).

평등(equality)은 ‘공정함, 치우침이 없음. 남녀 각 개인에게 마땅히 주어야 할 것을 주는 것 또는 주고자 하는 것’을 의미한다(김윤옥 외, 1998, p.198). 구체적으로 평등의 내용을 살펴봤을 때, 과거에는 참정권과 같은 형식적인 평등에 관심을 기울였다면 오늘날에는 적극적인 형태의 실질적 평등에 관심을 기울인다. 즉, 양성평등이란 “사회적 구성체로서의 남녀가 치우침 없이 실질적으로 평등한 상태를 이루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양성평등을 단순하게 “남성과 여성이 평등한 상태”라는 고정된 의미를 이해하기 보다는 현재 우리나라의 사회문화적 맥락에서 이해한 의미이며, 이는 양성평등이 사회와 역사에 따라 구체적인 의미와 내용을 달리하는 논쟁적이고, 정4치적인 개념이기 때문이다(Verloo and Lomvardo, 2009; 정해숙, 마경희, 최윤정, 2013, p.11에서 재인용).

그 사회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다루어지는 성불평등 문제가 무엇이고, 양성평등의 지향점이 무엇이나에 대한 논쟁과 정치적 활동이 이루어지면서 여성학자들이 그 시기의 사회문화적 맥락에 맞게 발전시켜온 양성평등의 개념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양성평등의 동일성 모형이다. 이 모형은 같은 것을 함께 다루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으며, 남녀를 동일하게 대우하는 것이 양성평등이라고 본다. 양성 간에 인간으로서 차별 받을 만한 요소가 없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여성이 가진 임신, 출산, 수유와 같은 생물학적 차이에 대한 우려와 논쟁이 있는 모형이다. 둘째, 양성평등의 지배 타파 모형이다. 이 모형은 양성의 같고 다름이 성

차별이 생기는 일차적인 문제가 아니라 지배와 피지배 관계로 인해 생기는 문제라고 보고 있다. 예를 들어, 강간, 포르노와 같이 여성을 대상으로 발생하는 일들이 양성 간의 상이함이 아닌 남성에 의한 여성의 지배라는 성차별적인 구조 하에 일어나는 문제라는 것이다. 즉, 지배 타파 모형에서는 남녀의 차이를 차별로 만드는 여성에 대한 억압적인 구조와 불평등 체제를 타파하는 것이 양성평등이라고 본다. 셋째, 양성평등의 이중 권리 모형이다. 이중 권리 모형에서는 현재의 양성 간의 비대칭적인 권력 관계의 해체를 중점적으로 보고 있다. 현 시점에서 양성에게 동일한 권리를 주게 된다면 이미 우위에 서 있는 남성에게 유리하게 적용할 수밖에 없으며, 비대칭적인 권력 관계가 해체되는 동안 한시적으로 여성에게 이중 권리를 보장해야한다는 것이다(김재춘, 왕석순, 1999, pp.14-17).

#### 나. 양성평등교육의 의미

양성평등의 의미와 양성평등교육의 의미가 동일한 것은 아니지만, 양성평등의 의미에 대한 논의와 양성평등이 사회·문화적 맥락과 논쟁점에 따라 그 개념과 의미가 정의되고 있기 때문에, 양성평등교육의 의미 또한 우리 사회·문화적 맥락과 논쟁점이 무엇이나에 따라 정의될 것이다.

김재춘·왕석순(1999)은 양성평등교육의 의미를 ‘양성평등한 교육’과 ‘양성평등 의식 교육’으로 규정한다. 첫 번째 의미인 ‘양성평등한 교육’은 교육활동에 성차별적 요소나 성불평등 요소가 포함되지 않은 교육으로써 다시 소극적인 양성평등 교육과 적극적으로 나눌 수 있다. 소극적인 양성평등교육이란 양성에게 똑같은 교육을 제공하는 가장 기초적인 수준의 양성평등교육이고, 적극적인 양성평등 교육이란 양성이 동일한 학습 성취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각 성(gender)의 특성을 고려한 교육을 실시하는 것을 말한다. 양성평등교육의 두 번째 의미인 ‘양성평등 의식 교육’은 양성평등한 사회를 재건하기 위해 양성평등한 가치관과 의식을 길러주기 위한 교육이다. 교육을 제공할 때 성차별적 요소나 성불평등 요소를 제거한 평등한 교육을 실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학생들이 학교에서 벗어나 사회로 나아갔을 때 성차별적인 제도나 의식이 남아 있다면 자연스럽게 양성의 불평등한 상황을 받아드릴 수 있기 때문에, 불평등 상황을 인식하여 성차별적인 제도를 타파하고 양성평등한 사회를 재건할 수 있는 가치관과 인식을 심어주는 ‘양

성평등 의식 교육'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교육부(2005)에서는 양성평등교육을 '동일한 교육접근기회로서의 양성평등교육', '비성차별적 교육으로서의 양성평등교육', '탈위계적 성 관계(gender relation) 구축을 위한 교육으로서의 양성평등교육'으로 구분하고 있다. '동일한 교육접근기회로서의 양성평등'에는 먼저 동일한 교육기회를 제공하는 양적 측면으로서의 평등을 생각할 수 있는데, 이는 최소 수준의 평등이며 양성평등교육이 우리 사회의 성차별적 이데올로기를 극복하고 양성평등한 성 관계(gender relation)를 재생산하기 위해서는 질적인 측면의 양성평등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두 번째로 '비성차별적 교육으로서의 양성평등교육'은 의도적이든 비의도적이든 학교 교육장면 전반에 걸쳐서 성 편견 및 고정관념에 근거한 성차별적은 교육을 실시하지 않는 교육으로 양성의 생물학적 성차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기계적으로 동일한 교육을 제공한다면 근원적인 양성평등교육을 이뤄낼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

세 번째 '탈위계적 성 관계(gender relation) 구축을 위한 교육으로서의 양성평등'은 앞서 교육부(2005)에서 밝힌 두 가지의 양성평등교육의 의미같이 동등한 교육기회로 인식되거나 모든 성차별을 배제하는 교육이 아닌 남성우위의 성 관계(gender relation)를 재구조화하여 탈위계적인 관계로의 재정립을 위한 교육이다. 즉, 양성평등교육은 명시적·의도적으로 양성평등의식을 가르치는 것은 물론 교사의 교수·학습과정을 비롯하여, 학교 교육활동에 내재되어 있는 성차별성을 파악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다. 또한 학생이 성 정형화된 교육경험을 갖는 것을 방지하고, 더 나아가서는 전통적인 성 관계(gender relation)를 극복할 수 있는 교육경험을 가질 수 있어야 한다.

## 2. 양성평등적 관점에서의 교육과정과 교과서

### 가. 양성평등한 교육과정의 의미와 특성

양성평등한 교육과정이란 학교 교육과정과 교과서가 교육과정이 추구하는 인간상과 목표에서 양성평등이념을 추구하는 것으로써 테트랄트(Tettrault, 2003)는

여성해방이론의 관점에서 교육과정 및 양성평등 교육과정의 내용을 <표 II-1>과 같이 제시하였다.

<표 II-1> 여성해방이론의 관점에서 살펴 본 교육과정 분류

교육과정의 특징	
남성 중심 교육과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교육과정에서의 여성의 소외에 대한 무관심함.</li> <li>남성 중심의 경험과 지식은 그동안 다른 집단의 지식과 경험에 비해 특별히 강조되고 가치 있게 평가되며 주요 지식이라고 인식함.</li> <li>남성의 경험 중심 교과서와 교육과정이 특별히 선택된 지식과 경험이라는 것에 대한 인식이 부족함.</li> </ul>
공헌 중심 교육과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교육과정에서 여성의 소외에 대한 인식이 부족함.</li> <li>남성 중심의 역사와 남성적 특성과 가치 위주의 우수함을 강조함.</li> <li>성공 등의 가치에 대한 비판적 회의를 통해 소외된 여성의 역사와 경험을 찾으려는 노력임.</li> <li>여성은 예외적·일탈적 존재로 간주함.</li> <li>여성의 역사를 교육과정에 포함시키지만 내용은 여전히 남성 중심임.</li> </ul>
이중 초점 교육과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인류의 경험을 여성·남성 혹은 개인·집단의 이주 잣대로 분류함.</li> <li>여성의 억압과 여성 혐오 등의 역사에 대해 중점을 두고 이를 극복하는 여성의 역사를 강조함.</li> <li>여성을 교육과정에 포함시키고 강조함으로써 기존의 교수·학습 방법이 남성 중심의 교육 구조에 의존해 왔음을 강조함.</li> </ul>
여성 중심 교육과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여성의 전통, 역사, 문화, 가치, 가치관 등을 새롭게 조명하고 가치를 부여하는 학문적 관심과 질문을 중시함.</li> <li>여성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사회적 요소들(예: 인종, 민족, 계층 등)의 다양한 상호연관성을 이해하는 다각적 관점을 제시함.</li> <li>여성의 경험을 공적·개인적 역사 경험의 연장선상에서 파악하고 사회적·역사적·문화적·정치적·경제적 맥락 속에서 이해하는 시도임.</li> </ul>
양성평등 교육과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남성과 여성을 인류 전체의 다양한 경험을 구성하는 구성 요소로 이해하기 위한 다각적이고 양성평등적 시각을 추구함.</li> <li>남성과 여성의 경험 모두 역사적 맥락 속에서 이해되고 규정지어진 것이며, 인종·계층·문화 등 다양한 사회적 요소에 따라 남녀의 권력과 지식의 중요성이 결정되는 것임을 파악함.</li> <li>남성과 여성을 동시에 이해하고 비교할 수 있는 지식의 재구성을 위해 노력함.</li> </ul>

주. 출처 양성평등교육 (pp. 25-26) 심미옥, 추병완, 이주한, 서동엽 저. 2011. 도서출판 하우.

교육과정은 사회적으로 그 권력이 우세한 집단에 의해 제작되고 관리되기 때문에 그 사회의 지배집단의 관심과 사고가 반영될 수밖에 없다. 즉, 교육과정이 제작되고 구조화되는 과정에서 한 성의 경험을 배타적으로 반영할 수 있다. 따라서 교육과정이 양성평등적 관점에서 어떠한 문제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의식을 가지고 교육과정을 바 중 어떤 성에 의해 주도적으로 제작·관리 되었는지, 알아보는 것이 양성평등한 교육과정을 개발하는데 밑거름이 된다.

양성평등한 교육과정이 가져야할 특성은 다양성(variation), 포괄성(inclusive), 정확성(accurate), 긍정성(affirmative), 대표성(representative), 통합성(integrated) 6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째, 다양성(variation)은 남성과 여성의 비슷한 점과 다른 점을 인정하고, 남성들 간 또 여성들 간에도 유사점과 차이점이 있음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다. 둘째, 포괄성(inclusive)은 양성 모두 스스로에 대한 긍정적인 메시지를 발견하고 확인하는 것이다. 셋째, 정확성(accurate)은 데이터에 기초하여 입증할 수 있고 비판적 분석에도 견딜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다. 넷째, 긍정성(affirmative)은 개인과 집단의 가치를 인정하고 소중히 여기는 것이다. 다섯째, 대표성(representative)은 다양한 관점들 간에 균형을 이루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통합성(integrated)은 남성과 여성의 관심과 필요, 경험을 함께 섞어서 교육과정으로 구성하는 것이다. 6가지 특성을 종합해 봤을 때, 양성평등한 교육과정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양성을 인정하고 양성의 가치, 경험, 관점의 균형을 이루고 보완해야한다(교육부, 2005, pp. 40-42).

#### 나. 교과서에 나타나는 성차별적 요소

교과서 내용상의 명시적인 성차별적 요소와 교과서 그림이나 문장 속에 등장하는 다양한 인물들의 성비 불균형과 성 정형적인 활동 묘사 등은 학생들에게 전통적인 성역할 고정관념을 강화시키는 암묵적인 요소로 작용할 수 있으며(교육부, 2005, p.13), 교과서의 서술 방식과 내용에는 다양한 방식으로 성에 대한 편견이 포함되어 있다.

첫째, 희소성(invisibility)이 있다. 희소성이란, 여성이 교육 내용에서 자주 등장하지 않고 배제되는 것을 말한다. 교과서에서 여성이 문장이나 그림에서 남성



비해 낮은 비율로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는 여성에 대한 내용이 중요치 않으며 사회적으로 가치가 없다고 여겨진다.

둘째, 성역할 고정화(stereotyping)가 있다. 성역할 고정화란 성(gender)에 따라 고정화된 역할과 특성을 지니고 있으며, 고정화된 성역할에 따라 남성과 여성을 표현함으로써 여성의 영향력을 제한적으로 표현하는 것을 말한다.

셋째, 불균형과 선택성(imbalance and selectivity)이 있다. 교과서에서는 사회적 문제를 복합적으로 제시하거나 다양한 관점으로 해석하지 않고 단일 해석만을 제시한다. 이 때, 교과서에서 제시하는 해석이 여성에게 불리하거나 남성의 관점에서만 제시된 해석이라면 학생들은 여성의 관점을 접하거나 이해할 수 없다. 대표적으로 교과서에서 이혼율 증가를 기술하면서 여성들의 관점은 무시한 채, 여성의 사회 참여 증가가 이혼율 증가의 주요 원인이라고 지적하는 것이 있다. 남성 중심적 관점에서 선택적으로 내용을 제시하고 불균형한 해석을 함으로써 교과서는 현실을 왜곡하고 다양한 관점을 무시한 것이다.

넷째, 비현실성(unreality)을 들 수 있다. 현실적으로 사회가 당면해 있는 문제들 중 드러내고 싶지 않은 사실이나 논쟁거리가 될 만한 내용을 제외하고 회피함으로써, 교과서는 논쟁거리가 되지 않는 내용만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교과서의 비현실성은 학생들이 사회적으로 당면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지 못하기 때문에 학생들이 문제 해결을 방법을 대비할 수 없게 만든다.

다섯째, 분절화(fragmentation)이다. 교과서에서 여성에 관련된 주제를 분리된 부분으로 따로 취급하거나 부록, 특별 사항으로 끼워 넣는 것으로, 여성이 주류가 아니며 지엽적인 것처럼 보이게 하며, 여성의 역사는 주류에 비해 중요하지 않은 것처럼 비취지게 한다.

여섯째는 언어적 편견(linguistic bias)이다. 집단을 대표하는 용어를 남성 위주로 사용하는 것으로 남성 화가는 ‘화가’라고 표현하지만 여성 화가는 ‘여류 화가’와 같이 표현하거나, 남성 위주의 단어의 순서나 남성이 주된 역할을 하는 것으로 표현하는 것이다(곽삼근 외, 2015, pp. 133-134).

교과서에 명시적, 암묵적으로 담겨 있는 성차별적 요소를 통해 여학생들에게 전달되는 여성에 대한 부정적인 메시지는 중학교 이후로 학년이 높아질수록 여학생들의 자아존중감이 낮아지는 원인 중 하나로 지적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교과

서에 나타나는 성차별적 요소들은 학생들의 교과에 대한 태도, 진로 발달 등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교육적인 관점에서 진지하게 고려되어야 한다(교육부, 2005, p. 43).

#### 다. 양성평등적 관점에서의 교과서 평가기준

양성평등교육과 관련하여 이루어졌던 기존의 연구들은 대체로 교과서 내용을 분석한 연구들이 많은데, 통상적으로 각 연구에서는 교과서 내용 구성과 관련하여 양성평등 정도를 분석하기 위해 분석을 위한 기준이나 요소 및 항목 제시하고 있다.

오재림과 정해숙(2002)은 교과서 개발과정에서 활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양성평등적 관점에서 교과서를 분석하고 심의 기준을 마련하는 연구를 진행하였는데, 이 연구에서는 교과서 심의 기준을 소극적 양성평등과 적극적 양성평등으로 나누어서 제시하고 있다. 먼저, 소극적 양성평등 관점에서의 기준은 ‘등장인물의 성별 분포’, ‘등장인물의 성별 비중’, ‘성별 특성’, ‘남녀 지위 및 역할 관계’, ‘언어적 편견 문제’의 5가지의 대영역으로 분류하였으며, 다음으로 적극적 양성평등 관점에서의 기준은 ‘양성평등적 반영 정도’, ‘양성평등 의식 교육 기회’의 2가지 대영역으로 분류하였다. 또한 대영역을 바탕으로 한 심의 기준 지표 항목을 25가지로 제시하였는데, 그 내용은 <표 II-2>와 같다.

<표 II-2> 양성평등적 관점에 기초한 교과서 심의기준안 지표 항목

관점	대영역	심의 기준 지표 항목
소극적 양성 평등	등장인물 의 성별분포	1. 가정생활에서 등장인물의 남녀 비율은 균형을 이루고 있는가?
		2. 사회생활에서 등장인물의 남녀비율은 균형을 이루고 있는가?
	등장인물 의 성별비중	3. 역사적 사실에서 등장인물의 남녀비율은 균형을 이루고 있는가?
		4. 문학작품에서 등장인물은 남녀비율은 균형을 이루고 있는가?
	성별특성	5. 가정생활에서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남녀비율은 균형을 이루고 있는가?
		6. 사회생활에서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남녀비율은 균형을 이루고 있는가?
	남녀지위 및 역할관계	7. 역사적 사실에서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남녀비율은 균형을 이루고 있는가?
		8. 문학작품에서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남녀비율은 균형을 이루고 있는가?
		9. 남녀등장인물의 외모 묘사부분에서 고정적인 성편견을 드러내고 있는가?
		10. 남성의 정서적 표현이 많이 묘사되고 있는가?
		11. 남녀등장인물의 성격 묘사에서 전통적인 성편견을 드러내고 있는가?
12. 가정생활에서 전통적으로 남성의 일이라고 생각되는 활동을 여성이 하는 모습이 묘사되고 있는가?		
13. 가정생활에서 전통적으로 여성의 일이라고 생각되는 가사활동 및 양육 활동을 남성이 하는 모습이 묘사되고 있는가?		
언어적 편견 문제	14. 학습활동에서 남성적 놀이와 여성적 놀이가 구분되어 묘사되었는가?	
	15. 직업활동에서 여성의 참여가 적었던 분야에서 종사하는 다양한 여성의 모습을 다루고 있는가?	
적극적 양성 평등	양성평등적 반영정도	16. 전통적으로 남성의 참여가 적었던 직업영역에 종사하는 남성의 모습을 다루고 있는가?
		17. 역사적 사실에서 언급되고 있는 여성이 독립적인 존재로 다루어지고 있는가?
	양성평등 의식교육 기회	18. 관계화된 남성중심적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가?
		19. 가사노동에 대한 남성의 참여가 소극적으로 표현되고 있는가?
		20. 가정생활에서 여성과 남성의 역할에 대한 기술이 양성평등 관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가?
적극적 양성 평등	양성평등적 반영정도	21. 사회생활에서 여성과 남성의 역할에 대한 기술이 양성평등 관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가?
		22. 역사적 사실에서 여성과 남성의 역할에 대한 기술이 양성평등 관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가?
	양성평등 의식교육 기회	23. 현실 사회에서 여성이 겪는 다양한 성차별상황을 양성평등적 관점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 학습활동이 주어지는가?
24. 남녀활동의 다양한 진로 모색을 생각해 볼 수 있는 학습활동이 주어지는가?		
		25. 여성의 인권이나 권리에 대해 다룬 문제가 있는가?

주. 출처 양성평등적 관점에 기초한 제7차 교과서 분석 및 교과서 심의 기준 마련에 대한 정책연구 (pp. 177-178) 오재림, 정해숙 저. 2002. 교육인적자원부.

교육부(2005)에서는 양성평등적 관점의 성불평등 현상에 대한 외국 학자의 연구(Sadker, Sadker, long, 1997)를 바탕으로 성역할 정형화, 여성의 불가시성, 남성 중심적인 교육내용의 전개, 불평등한 지위 부여라는 5가지 영역에서 교과서에서 나타난 성차별적 요소를 분석하였으며, 그 기준을 요약하면 <표 II-3>와 같다.

<표 II-3> 교과서 내 성차별적 요소

요인	심의 기준 지표 항목
성역할 정형화	• 전통적인 성역할 고정관념에 기반하여 양성의 활동영역과 하는 일을 경계 짓고 있는가?
여성의 불가시성	• 여성 인물이 거의 등장하지 않거나 남성인물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수만이 등장하는가?
남성중심적인 교육내용의 전개	• 특정 집단의 관점과 경험만을 다루고 있는가?
여성에 관한 자료 분리	• 여성에 관한 내용을 본문에서 다루지 않고, 글상자 또는 예시문 등으로 별도로 분리하여 다루고 있는가?
불평등한 지위 부여	• 여성을 경시 또는 비하하거나 비독립적인 존재로 묘사하는가? • 남성에게 더 많은 권위를 부여함으로써 여성보다 남성이 더 존중받아야 할 존재로 묘사하고 있는가?

또한 교육부(2007)는 교과서 집필 기준에서 양성평등 교육을 위한 교과서 내용 구성의 방안을 제시하였다. 그 기준을 요약하면 첫째, 교과서의 내용이나 삽화에 가능한 양성 인물을 비슷한 비율과 비중을 등장 시킨다. 둘째, 사회에 편재해 있는 성에 관한 고정관념을 배제하고, 이를 비판적이고 미래지향적으로 성찰하는 내용을 반영한다. 셋째, 양성평등의 면에서는 현재 우리 사회가 지니고 있는 긍정적 측면뿐만 아니라 부정적인 측면의 내용들도 기술한다. 넷째, 성차별을 반영하는 언어 표현을 금지하고, 양성평등한 언어 표현을 보다 적극적으로 사용한다.

그 밖에도 구정화, 박영석, 설규주(2012)는 교과서에서 양성평등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해 15가지 기준을 제안하였으며, 이 기준에는 등장인물의 비중과 분포에서 형평성 확보, 등장인물의 역할과 특성에서 성역할 정형성의 배제, 등장인물의 활동 및 직업과 관련하여 형평성 강조, 젠더 관계에 대한 묘사에서 정확성, 여성 관련 이슈 및 양성평등 교육 내용 취급, 성차별적인 언어 사용 배제 등을 포함하고 있다(옥일남, 2015, pp. 11-13).

독일의 경우는 교과서 검정 시 ‘각 연령에 적합할 뿐 아니라 양성평등원칙을 담보하는 내용이 선별되고, 그에 알맞은 외적 형식, 곧 언어 형식이 갖추어져야 한다.’ 는 항목이 있으며, 구체적 항목들은 <표 II-4>의 내용과 같다(김진영 외, 2010, pp. 37-38).

<표 II-4> 독일 교과서 검정 항목

검정 항목
• 남학생과 여학생 모두가 교육 테마에 몰입할 수 있도록 교과서가 충분한 자기 동화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가?
• 학문, 예술, 정치, 사회 부문의 업적을 제시함에 있어 남성·여성 대표자가 적절한 비율로 다루어지고 있는가?
• 교과서의 텍스트 및 그림 선정 시, 남학생과 여학생이 동등하게 미래의 직업, 가정, 사회에서 책임을 다할 준비를 할 수 있도록 고려하고 있는가?
• 전형적인 남녀 역할 분담에 관한 서술들이 배제되어 있는가?

선행된 연구나 기준을 살펴보면 양성평등적 관점에서의 교과서 평가 기준은 양적, 소극적 의미의 양성평등에 기초한 기준을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으며, 구체적인 항목들은 평가할 분야의 특성에 따라 차별적으로 구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선행된 연구 결과나 기준들을 바탕으로 미술교과서의 특성에 맞게 양성평등교육을 실현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해야 하며, 양성평등적 관점에서 미술교과서를 분석하여 미술교과서가 질적, 적극적 측면에서의 양성평등교육을 구현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논의가 필요하다.

### Ⅲ. 분석 기준 및 교과서 분석

#### 1. 분석 기준

교과서에 내재되어 있는 성차별적 요소는 학생들에게 전통적인 성역할을 고정시키는 암묵적인 교육과정으로 작용할 수 있으며, 학생들의 사회화 과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반드시 개선해야 한다. 따라서 교과서를 양성평등적 관점에서 분석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며, 분석을 위한 적합한 기준을 세우는 것 또한 중요한 과정이다.

본 연구는 양성평등적 관점에서 미술교과서를 분석하여 그 필요성을 환기하고 앞으로 개정될 미술교과서가 개선할 점을 제안하는 데 목적이 있다. 따라서 개선할 점을 제안할 수 있는 내용을 중심으로 미술교과서의 특성에 적합한 기준을 설정하고자 한다.

분석 기준은 대영역-중영역-세부지표로 나누어서 제시하였다. 대영역은 오재림 외(2002)가 언급한 양성평등적 관점(소극적, 적극적)을 반영하였고, 중영역은 교육부(2005)의 연구에서 나타난 교과서에 내재된 성차별적 요소 6가지(회소성, 성역할 고정화, 불균형과 선택성, 언어적 편견, 분절성, 비현실성) 중 4가지(회소성, 성역할 고정화, 불균형과 선택성, 비현실성)를 반영하였다. 마지막으로 세부지표는 성차별적 요소를 바탕으로 초등학교 미술교과서의 특성에 맞게 구체적인 평가항목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구체적인 분석 기준을 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표 III-1> 양성평등적 관점에서의 교과서 분석 기준

대영역	중영역	세부지표
소극적 양성평등	여성의 희소성	1. 사진에서 등장인물의 성별은 균형을 이루고 있는가?
		2. 그림에서 등장인물의 성별은 균형을 이루고 있는가?
	성역할 고정화	3. 주요 인물의 외모 묘사부분에서 고정적인 성편견이 있는가?
		4. 체육 활동 묘사부분에서 고정적인 성편견이 있는가?
		5. 직업 활동 묘사부분에서 고정적인 성편견이 있는가?
	불균형과 선택성	
적극적 양성평등	비현실성	7. 여성관련 이슈 및 양성평등 교육 내용을 다루고 있는가?

미술교과서는 텍스트보다 삽화 자료가 많기 때문에 중영역인 ‘여성의 희소성’에 따른 세부 지표는 삽화에 나온 등장인물의 성별 분포를 분석할 수 있도록 설정하였으며, 삽화 중에서도 그림과 사진에 제시된 작품의 작가의 성별 분포를 분석한다. 예문이나 삽화에서 여성 인물의 적게 등장하거나 역사적으로 공헌한 여성 인물이 배제되는 것은 사회 발전에서 여성의 역할을 평가절하하고, 부수적인 존재라는 성차별적 의식을 갖게 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중요한 분석 기준이라 할 수 있다.

중영역 ‘성역할 고정화’에 따른 세부지표는 전통적인 성역할 고정관념에 기반을 두어 양성의 활동영역과 하는 일을 경계 짓고 있는지 판단하기 위한 기준으로 외모 묘사, 체육 활동 묘사, 직업 활동 묘사로 나누어서 설정하였다. 한 번 형성된 고정관념은 일생동안 지속되는 경향이 있으며(장휘숙, 1992, chap. 10), 역할 고정관념에 근거한 내용구성은 학생들이 현실세계에 존재하는 다양한 개인차나 인간 존재의 다면성과 복잡성, 다양성을 이해하지 못하게 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교과서에서 고정화된 성역할을 배제하고자 하는 노력이 끊임없이 필요하다.

중영역 ‘불균형과 선택성’은 남성의 경험이나 해석만을 제시하고 있지 않은지 판단하는 분석 기준이다. 언어적 편견이나 성역할 고정관념 그리고 희소성의 기

준이 교육과정의 개혁에 따라 점차 개선의 측면을 보이는 것과는 달리 실제로 '불균형과 선택성'에 관련한 성차별적 요소는 거의 인식의 대상조차도 되지 않은 상태이다. 예를 들면, 현행 교과서에 등장하는 역사적 인물로서의 여성은 모든 학교급과는 무관하게 3% 내외를 넘지 못하고 있다(오재림 외, 2002, p.39). 이를 미국 대학 여성 협회(American Association of University Women[AAUW], 1992)에서 밝힌 '성 평등적 교육과정의 발달 단계'에 의거하여 설명하면 우리나라의 교과서는 여성이 등장하지 않는 1단계 또는 뛰어난 예외적인 여성만이 등장하는 2단계에 머물러 있는 후진적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미술교과서에서 역사적 사실 및 역사적인 인물은 각각 미술사와 작가로 대표되기 때문에 미술교과서에서 여성 작가의 비율을 균형 있게 다루고 있는지 분석한다.

비현실성은 현실에서 발생하고 있는 성차별적 문제를 교과서에서 다루고 있는가를 평가하는 기준이다. 미술사에서 여성 작가들이 배제되어 온 배경이나 직업 활동에서 발생하는 성차별적인 상황과 같이 여성 관련 이슈나 양성평등과 관련 교육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지 분석한다.

교육부(2005)가 언급한 6가지의 교과서 내 성차별적 요소 중 언어적 편견, 분절성은 분석 기준에서 제외하였는데, 언어적 편견은 현행교과서에서 많이 개선된 요소이며, 미술교과서에는 텍스트가 적어 언어적 편견을 분석하기 어렵기 때문에 제외하였다. 또한 분절성은 초등학교 미술교과서에서 제시되는 역사적 사실이나 작가 설명이 교과서 내용의 주를 이루고 있지 않기 때문에 여성뿐만 아니라 남성에 관한 내용도 교과서에서 쉬어가기, 부록의 형태로 분절적으로 제시하고 있어 분석 기준에서 제외하였다.



## 2. 교과서 분석

본 연구는 2009 개정 교육과정에 따라 검인정된 초등학교 5-6학년 미술교과서 5종(금성, 비상, 아침나라, 천재교육, 천재교과서)을 분석 대상으로 하며, 앞서 제시한 세부지표 7가지에 근거하여 교과서에 내재된 성차별적 요소 및 양성평등교육 사례를 분석하였다.

### 가. 여성의 희소성(imbalance and selectivity)

#### 1) 사진에서 등장인물의 성별은 균형을 이루고 있는가?

미술교과서에는 활동 과정이나 활동 장면을 나타내기 위해서 실제인물의 사진을 교과서에 삽입하고 있다. 교과서 사진 속에서 등장하는 인물의 성별이 한 쪽에 치우쳐져 있는 경우 희소성과 관련된 성차별요소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교과서 사진 속 등장인물 중 남성의 수, 여성의 수, 성 비율(gender ratio)을 분석하여 표로 나타내었다. 중복되는 인물, 크기가 작거나 가면 등의 착용으로 인해 성별이 불명확한 인물은 제외하여 계수하였으며, 사진 속 등장인물의 성별 분포를 교과서 별로 분석한 결과는 <표 III-2>와 같다.

<표 III-2> 교과서별 등장인물의 성별 분포(사진)

		금성	비상	아침나라	천재교육	천재교과서
인원 (명)	남	42	76	97	53	77
	여	43	74	101	50	63
비율 (%)	남	49.4	50.7	49	51.5	55
	여	50.6	49.3	51	48.5	45

교과서 별로 사진 속 등장인물의 성 비율(gender ratio)을 살펴보면, 금성은 남성 49.4%, 여성 50.6%, 비상은 남성 50.7%, 여성 49.3%, 아침나라는 남성 49%, 여성 51%, 천재교육은 남성 51.5%, 여성 48.5%, 천재교과서는 남성 55%, 여성 45%의 비율 분포를 보였다. 사진 속 여성의 비율이 더 높게 나온 교과서는 금성, 아침나라였으며, 남성의 비율이 더 높게 나온 교과서는 비상, 천재교육, 천재교과서의 교과서였다. 그러나 모든 교과서가 양성의 비율이 50% 근사치를 보여 거의 동등한 수치로 양성이 등장하고 있어 교과서 사진 속 등장인물의 성별 분포에서는 양적인 측면의 양성평등교육이 잘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 그림에서 등장인물의 성별은 균형을 이루고 있는가?

교과서에는 그림은 학습내용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학습내용 구성에 있어 일관성을 부여하며, 사진이나 문자가 전달할 수 없는 추상성이나 시간·공간적 제약을 극복하는 기능을 수행한다(채기범, 2004, pp. 10-11). 그림 속에서 나타나는 성별이 한 쪽에 치우쳐져 있는 경우 희소성과 관련되어 성차별요소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교과서 그림 속 등장인물 중 남성의 수, 여성의 수, 성비율을 분석하여 표로 나타내었다. 그림 중 장식적 기능을 갖고 학습 내용을 구조화하기 위해 반복적으로 나오는 그림과 성별이 불명확한 그림, 동물 그림은 제외하여 계수하였으며, 그림 속 인물의 성별 분포를 교과서 별로 분석한 결과는 <표 III-3>와 같다.

<표 III-3> 교과서별 등장인물의 성별 분포(그림)

		금성	비상	아침나라	천재교육	천재교과서
인원 (명)	남	29	79	32	38	138
	여	32	74	16	33	91
비율 (%)	남	47.5	51.6	66.7	53.5	60.6
	여	52.5	48.4	33.3	46.5	39.4

교과서 별 그림 속 등장인물의 성 비율(gender ratio)을 살펴보면, 금성은 남성 47.5%, 여성 52.5%, 비상은 남성 51.6%, 여성 48.4, 아침나라는 남성 66.7% 여성 33.3%, 천재교육은 남성 53.5%, 여성 46.5%, 천재교과서는 남성 60.6%, 여성 39.4%의 비율 분포를 보였다. 그림 속 여성의 비율이 더 높게 나온 교과서는 금성출판사의 교과서였으며, 남성의 비율이 더 높게 나온 교과서는 비상, 아침나라, 천재교육, 천재교과서의 교과서였다. 앞서 사진 속 등장인물의 성별 분포에 비해 남성의 분포가 더 높은 경향을 보이는데, 특히 아침나라와 천재교과서 출판사의 교과서에서 확연하게 차이를 확인할 수 있다. 두 출판사의 그림 속 인물의 성별 분포가 사진보다 더 두드러지게 차이가 나는 까닭은 다음과 같다. 첫째, 아침나라 교과서의 경우 교과서 각 페이지에서 그림의 성별 분포 비슷하게 나타났지만, 교과서 중간에 실려 있는 ‘위대한 화가 이야기’ 3편 중 2편이 남성 화가의 이야기로 남성 많이 등장해 양성 간의 성별 분포가 커지게 되었다. 즉, 학습 내용을 그림으로 표현하는 과정에서 내용상의 차이, 질적인 측면의 양성평등교육에 차이가 발생하여 성별 분포의 차이가 생긴 것이다. 둘째, 천재교과서의 차이는 내용상의 차이가 아닌 남성 그림의 비율이 앞서는 페이지가 반복됨에 따라 생긴 차이이다. 즉, 양적인 측면의 양성평등교육이 저해된 사례라고 볼 수 있다. 두 교과서를 제외한 금성, 비상, 천재교육의 교과서는 양성의 비율이 50% 근사치를 보이며, 거의 동등한 수치로 양성이 등장하고 있어 교과서 그림 속 등장인물의 성별 분포에서는 양적인 측면의 양성평등교육이 잘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나. 성역할 고정화(stereotyping)

1) 주요 인물의 외모 묘사부분에서 고정적인 성편견이 있는가?

교과서 삽화에서는 특정성별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거나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경우가 있는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인물의 외형에 고정적인 성편견이 반영되어 있다면 학생들이 양성의 외형을 차별적으로 인식하는 데 영향을 줄 수 있다.

미술교과서에서는 학습 내용을 구조적이고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서 학습

도우미를 채택하고 있다. 학습도우미들은 교과서에서 반복적으로 등장하고 있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교과서에 나오는 학습도우미를 주요 인물로 설정하여 학습도우미의 외모 묘사에서 고정적인 성편견이 드러나고 있는지 분석하고자 한다.

학습도우미의 외형은 ① 머리 모양, ② 옷의 형태, ③ 옷의 색깔, ④ 크기를 비교·분석하여 외형에 있어 남성성과 여성성에 대한 고정관념이 있는지 살펴보고 ⑤ 표정 및 감정 ⑥ 동작을 비교·분석하여 남성을 주도적, 이성적으로 표현하고 여성을 수동적, 감정적으로 표현하는 요소가 있는지 살펴보았다. \

단, 천재교육의 교과서는 부엉이 캐릭터를 단독으로 학습도우미를 채택하여 성별이 설정되어 있지 않고, 금성의 교과서는 5학년 기초에서 강아지, 6학년 심화에서는 고양이 캐릭터가 학습도우미로 설정되어 성편견을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에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① 학습도우미 : 비상교육

<표 III-4> 학습도우미(비상교육)

		
	여성 학습도우미	남성 학습도우미
머리 모양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묶은 갈색 파마머리</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갈색 짧은 머리</li> <li>• 파란색 상어 모자</li> </ul>
옷의 형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파란색 멜빵바지, 긴 티셔츠</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반지, 긴 티셔츠</li> </ul>
옷의 색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분홍색 상의, 파란색 하의</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파란색 상의, 초록색 하의</li> </ul>
크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여성 학습도우미와 남성 학습도우미의 크기를 거의 동등하게 표현</li> </ul>	
표정 및 감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두 학습도우미 모두 긍정적인 감정과 궁금해 하는 감정을 공통적으로 표현함.</li> <li>• 여성 학습도우미에게서만 윙크를 하고 있는 표정이 나타남.</li> </ul>	
동작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두 학습도우미의 동작이 크게 다르지 않고, 같은 포즈를 취하고 있는 그림이 많음.</li> </ul>	

② 학습도우미 : 아침나라

<표 III-5> 학습도우미(아침나라)

	<p>여성 학습도우미</p> <p>남성 학습도우미</p>
머리 모양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검정색 단발머리</li> <li>• 검정색 짧은 파마머리</li> </ul>
옷의 형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멜빵바지, 반팔 티셔츠</li> <li>• 반바지, 셔츠</li> <li>• 소품: 모자, 망원경</li> <li>• 소품: 모자, 가방</li> </ul>
옷의 색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황토색 하의, 분홍색 상의</li> <li>• 황토색 상하의, 파란색 가방</li> </ul>
크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여성 학습도우미와 남성 학습도우미가 같이 등장하는 장면에서 여성 학습도우미의 크기를 더 작게 표현함.</li> </ul>
표정 및 감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두 학습도우미 모두 긍정적인 감정을 공통적으로 표현함.</li> <li>• 여성 학습도우미에게서만 윙크를 하고 있는 표정이 나타남.</li> </ul>
동작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두 학습도우미의 동작이 크게 다르지 않고, 대부분 비슷한 포즈를 취하고 있음.</li> <li>• 남성 학습도우미가 여성 학습도우미를 도와주는 동작이 있음.</li> </ul>

③ 학습도우미 : 천재교과서

<표 III-6> 학습도우미(천재교과서)

	
	<p>여성 학습도우미</p> <p>남성 학습도우미</p>
머리 모양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검정색 양갈래 머리</li> <li>• 갈색 짧은 머리</li> </ul>
옷의 형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멜빵 치마, 긴 티셔츠</li> <li>• 긴 바지, 긴 티셔츠, 조끼</li> </ul>
옷의 색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파란색 치마, 갈색 상의</li> <li>• 초록색 하의, 빨간색·검정색 상의</li> </ul>
크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여성 학습도우미와 남성 학습도우미의 크기를 거의 동등하게 표현</li> </ul>
표정 및 감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두 학습도우미 모두 긍정적인 감정과 의심하고 있는 감정을 공통적으로 표현함.</li> </ul>
동작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두 학습도우미의 동작이 크게 다르지 않고, 대부분 비슷한 포즈를 취하고 있음.</li> </ul>

세 교과서의 분석 내용을 종합하면, 첫째, 여성 학습도우미의 머리 모양은 주로 길고, 묶은 머리였고, 남자 학습도우미의 머리 모양은 모두 짧은 머리였다. 이는, 양성 간의 머리모양에 대한 고정적인 성편견을 보여준다. 둘째, 여성 학습도우미의 옷의 형태는 비상, 아침나라의 교과서에서는 바지는 표현하였고 천재교과서의 교과서에서만 치마로 표현하였다. 남성 학습도우미의 경우는 세 교과서에서 모두 바지로 표현하였다. 셋째, 여성 학습도우미의 옷은 분홍색, 파란색, 황토색, 갈색 등이 사용되었고, 남성 학습도우미의 옷은 파란색, 초록색, 빨간색이 주로 사용되었다. 분홍색은 여성 학습도우미에게서만, 초록색은 남성 학습도우미에서만 찾아볼 수 있었다. 또한, 여성 학습도우미에게서 파란색을 찾아볼 수 있을 경우 보통 청바지나 작은 부분으로 표현되었고, 천재교과서 교과서의 경우에는 여성 학습도우미의 많은 부분에서 파란색을 보이고 있기는 하지만 치마를 입고 있어 고정적인 성편견을 나타냈다. 넷째, 몸의 크기는 천재교육과 아침나라에서 두 학습도우미의 크기를 거의 동등하게 표현하였지만, 비상교육의 학습도우미는 남성 학습도우미의 크기가 더 크게 나타났다. 교육부(2017)에서 발표한 학생 건강검사 표본통계 분석결과에 따르면 초등학교 6학년을 기준으로 했을 때, 2006~2016학년도까지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평균 신장이 앞서고 있음에도 평균적으로 남성의 신장이 더 크다는 성편견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며, 비현실적 요소에 해당한다. 다섯째, 표정 및 감정은 양성 학습도우미 대부분이 미소를 짓고 있는 긍정적인 모습을 담고 있었으며, 미소를 짓고 있는 표정 외에 궁금해 하는 표정, 의심스러워하는 표정도 양성 학습도우미에 동등하게 표현됐다. 다만, 표정 중에서 윈크를 하고 있는 표정은 여성 학습도우미에서만 찾아볼 수 있었다. 여섯째로 동작을 분석했을 때, 양성 학습도우미가 모두 비슷한 동작을 취하고 있어 특별한 성편견을 찾아볼 수는 없었으나, 아침나라 교과서의 학습도우미가 함께 등장하고 있는 장면에서 남성 학습도우미가 몸집이 더 크고, 여성 학습도우미의 학습을 도와주고 있는 동작을 취하고 있어 남성 학습도우미가 주도적이고, 여성 학습도우미가 수동적이라는 성차별적 요소를 내포하고 있었다.



2) 체육 활동 묘사부분에서 고정적인 성편견이 있는가?

초등학교 교과서 삽화에서 두드러지는 현상 중 하나는 스포츠나 체육활동을 즐기거나 운동을 하고 있는 삽화의 절대 다수가 남성이라는 것이다. 각 교과서에서 나오는 남성의 체육활동 장면은 아동들로 하여금 스포츠는 남성들의 활동이라는 인식을 강화시키고(교육부, 2005, p. 49), 여성이나 스포츠를 좋아하지 않는 남성에게 대한 차별적 시선을 가져오기 충분하다.

본 연구에서는 각 교과서 별로 체육활동에서 묘사되는 남성의 수와 여성의 수를 표로 나타내었으며, 체육활동에서 양성이 동등하게 묘사되고 있는지 분석하였다. 성별을 알아보기 힘들거나 많은 사람들이 겹쳐져 있어 계수하기 힘든 것은 제외하였다.

<표 III-7> 체육활동을 하고 있는 인물의 수

		금성	비상	아침나라	천재교육	천재교과서
인원 (명)	남	24	9	12	16	21
	여	4	7	5	2	4
비율 (%)	남	85.7	56.3	70.6	88.9	84
	여	14.3	43.7	29.4	11.1	16

분석 결과, 교과서 삽화에서 체육활동을 하고 있는 인물의 성비율은 금성은 남성 85.7%, 여성 14.3%, 비상교육은 남성 56.3%, 여성 43.7%, 아침나라는 남성 70.6%, 여성 29.4%, 천재교육은 남성 88.9%, 여성 11.1%, 천재교과서는 남성 84%, 여성 16%로 집계되었다. 여성 비율이 가장 높은 교과서는 비상교육의 교과서로 43.7%였고, 가장 낮은 교과서는 천재교육의 교과서로 11.1%였다. 이는 앞서 분석한 교과서 삽화의 등장인물 성별 분포에 비해 매우 불균형적이며, 체육활동은 남성이 주를 이루고 있다는 고정관념이 내포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각 성별이 참여하고 있는 체육활동의 내용을 살펴보았을 때, 남성은 축구, 농구, 탁구, 수영, 달리기, 줄다리기, 씨름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묘사되었으며, 여성은 공기놀이, 공굴리기, 자전거, 피겨스케이팅, 체조, 물총놀이, 사방

치기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묘사되거나 남성의 경기를 여성이 응원하고 있는 모습이 묘사되었다. 이는, 여성이 체육활동 있는 장면을 표현했다고 하더라도 여성은 경쟁적인 것보다 리드미컬한 것에 흥미를 가지고, 힘을 순간적으로 나타내기보다는 지구적으로 리드미컬한 형식으로 표현하는 정서적인 활동을 선호하거나(이태신, 2000) 남성의 체육활동에 보조적인 역할을 한다는 고정적인 성편견이 반영되어 있는 것이다.

### 3) 직업 활동 묘사부분에서 고정적인 성편견이 있는가?

교과서 삽화에서는 다양한 직업군이 나타나며, 미술교과서에서도 학습 제재에 따라 다양한 직업군을 소개하고 있다. 다음 <표 III-7> 직업 활동을 묘사함에 있어서 나타나는 고정적인 성편견을 분석하기 위해 삽화에 등장하는 인물들을 직업별로 분류한 것이다.

<표 III-8> 직업군의 성별

직업	출판사		금성		비상		아침나라		천재교육 (류)		천재교육 (안)		합계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가수					1								1	-
과학자	1		1	1									2	1
도슨트		1		2					3		1		-	7
모델	1	2											1	2
무용가	12	17		2									6	17
미술 작가	7	1	13	3	2	1	2			6	1	30	6	
복원 기술자			1	1				1		1			3	1
사진사								2	1	1	1	3	2	
상인			1	3							1	1	4	
선생님									1		4	-	5	
악기 연주자		1								1		1	1	
안내원											1	-	1	
큐레이터								1			1	1	1	
탐정										2	1	2	1	
피겨스케이팅		1											-	1
환경미화원			1										1	-
합계(명)	21	23	17	12	3	1	6	5	11	11	52	50		
합계(%)	47.7	52.3	58.6	41.4	75	25	54.5	45.5	50	50	51	49		

7차 교육과정에 의한 교과서에서는 직업 활동의 대부분은 남성들의 활동으로 묘사되었다(교육부, 2005, p. 45). 그러나 2009개정 교육과정에 의한 미술교과서에서는 금성은 남성 47.7%, 여성 52.3%, 비상교육은 남성 58.6%, 여성 52.3%, 아침나라는 남성 75%, 여성 25%, 천재교육은 남성 50%, 여성 50%, 천재교과서는 남성 51%, 여성 49%의 비율로 양성이 거의 동등하게 직업 활동에서 묘사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과거 직업 활동은 남성들의 활동이라는 인식에서 벗어나 양적인 측면의 양성평등교육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양성이 묘사된 직업군의 종류에서는 고정적인 성편견이 드러나고 있다. 미술교과서에서 가장 많이 다루어진 직업군은 '미술작가'인데, 미술작가에서 남성의 수는 30명(83.3%)이고, 여성의 수는 6명(16.7%)에 불과했다. 또한, 직업군 중에서 1번만 언급된 경우를 제외한 '도슨트', '선생님'은 남성이 단 한 명도 등장하지 않고 100% 여성만 등장한 것을 알 수 있다.

미술교과서의 특성상 미술작가, 도슨트, 선생님은 미술작품을 소개, 안내하는 삽화에서 많이 등장하기 때문에 한 쪽 성별에 치우쳐서 위의 직업을 소개하는 것은 미술교과가 진로 교육적 측면에서 역할모델을 제공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아동이 특정 직업에 대한 고정적인 성편견을 갖게 할 우려가 있다.

#### 다. 불균형과 선택성(imbalance and selectivity)

##### 1) 참고작품 작가의 성별이 균형을 이루고 있는가?

교과서에 등장하는 역사적 인물은 교과서 집필진에 의해 만들어진 가공의 인물이 아니라 실존 인물로서, 각 분야의 위인이나 정치지도자, 과학자, 예술가 등이다. 이들은 각 분야에서 뛰어난 업적을 남기거나 인류의 역사를 이끌어 온 주체로서 학생들의 역할모델이 된다는 점에서 삽화나 이야기 속 인물들보다 훨씬 더 큰 영향력을 갖는다(교육부, 2005, p.53). 그러나 교과서에서는 역사적 인물로서의 남성이 여성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이 등장하며, 사회나 도덕 교과서에서도 여성의 역사는 분절적으로 언급되는 것을 찾아볼 수 있다. 이는 남성 중심적인 교육과정에 따라 남성의 역사와 의견이 불균형하게 선택 된 것이다.

미술교과서에서의 역사적 인물은 미술 작가로 대표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미술교과서의 작고 작품의 미술 작가의 성별 분포가 균형 있게 다루어졌는지 교과서 별로 참고작품의 정리하고 작가의 성별을 계수하였다. 역사적 인물과 관련된 분석이므로 학생 작품은 포함하지 않았으며, 분석 결과는 교과서 가나다순으로 제시하였다.

① 작가 성별 분포: 금성출판사

<표 III-9> 작가 성별 분포(금성)

번호	작가명/작품명	분류	
		남성	여성
1	루소(1844~1910/프랑스) 이국적 풍경(유채/1910)	√	
2	브란쿠시(1876~1957/프랑스) 공간 속의 새(눗쇠/1928)	√	
3	모네(1840~1926/프랑스) 건초더미(유채/1891)	√	
4	황주리(1957~/한국) 식물학(캔버스에 아크릴/2006)		√
5	고흐(1853~1890/네덜란드) 작가의 초상(유채/1888)	√	
6	렘브란트(1606~1669/네덜란드) 듣는 모습의 자화상(에칭/1629)	√	
7	렘브란트(1606~1669/네덜란드) 몽푁 코의 렘브란트(에칭/1629)	√	
8	이인성(1912~1950/한국) 여름 실내에서(수채/1934)	√	
9	페르메이르(1632~1675/네덜란드) 우유를 따르는 여인(유채/1660)	√	
10	칼로(1907~1954/멕시코) 정물과 앵무새(유채/1951)		√
11	몬드리안(1872~1944/네덜란드) 빨강, 파랑, 노랑의 구성(유채/1930)	√	
12	울덴버그(1929~/미국) 숟가락 다리와 체리(강철,1985~1988)	√	
13	헨드릭스(1944~2013/남아프리카 공화국) Q 드럼(플라스틱/1993)	√	
14	쿠르베(1819~1877/프랑스) 사과와 석류가 있는 정물(유채/1871)	√	
15	송용(한국/1940~) 소국이 있는 정물(수채/1980년대)	√	
16	김명주(1964~/한국) 행복한 수다(혼합재료/2011)		√
17	호크니(1937~/영국) 겨울 목재(2009)	√	
18	도상봉(1902~1977/한국) 성균관(유채/1973)	√	
19	드가(1834~1917/프랑스) 열네 살의 어린 무희(청동/1921~1931)	√	
20	폴록(1912~1956/미국) 푸른 기둥들: 11번(유채/1952)	√	
21	서구방(1323년 경/고려) 수월관음도(비단에 채색/1323)	√	
22	정선(1676~1759/조선) 계상정거도(종이에 먹/1746)	√	
23	김기창(1913~2001) 산사(수묵 채색/1976)	√	
24	미켈란젤로(1475~1564/이탈리아) 피에타(대리석/1497~1498)	√	
25	심사정(1707~1769/조선) 하경 산수(수묵 담채/조선시대)	√	
26	호베마(1638~1709/네덜란드) 미델하르니스의 가로수 길(유채/1689)	√	
27	드랭(1880~1954/프랑스) 콜리우르 항구에 있는 배(유채/1905)	√	
28	칸딘스키(1866~1944/프랑스) 무제(수채/1910)	√	
29	뒤샹(1887~1968/미국) 샘(세라믹/1965)	√	
30	위홀(1928~1987/미국) 검은콩(실크스크린/1968)	√	

31	백남준(1932/2006/한국) 텔레비전 정원(모니터, 식물/1974)	√	
32	크리스토(1935~/미국) 달리는 울타리(설치/1972~1976)	√	
33	클로드(1935~2009) 달리는 울타리(설치/1972~1976)		√
34	바스키아(1960~1988/미국) 잿더리(아크릴, 오일 스틱/1981)	√	
35	최정화(1961~/한국) 카발라(플라스틱, 강철/2013)	√	
36	전혁림(1916~2010) 호수(Ⅱ)(유채/1994)	√	
37	피카소(1881~1973/에스파냐) 게르니카(유채/1937)	√	
38	이왈중(1945~/한국) 제주 생활의 중도(장지에 혼합 재료/2011)	√	
39	백남준(1932~2006/한국) 피버 옵틱(혼합 재료/1995)	√	
40	서도호(1962~/한국) 유니폼/들:자화상/들:나의 39년의 인생(2006)	√	
41	장한중(1768~1815/조선) 쫄어도(수묵 담채/조선시대)	√	
42	천경자(1924~2015/한국) 금어도(수묵 담채/1970년대)		√
43	박승철(1965~/한국) 승무(수묵 담채/2002)	√	
44	김중식(1954~/한국) 장미(수묵 담채/2012)	√	
45	장우성(1912~2005/한국) 복숭아(수묵담채/1963)	√	
46	채용신(1848~1941/조선) 최익현 초상(채색/1905)	√	
47	금동원(1960~/한국) 사유의 숲-나무와 시(실크 스크린/2010)		√
48	오윤(1946~1986) 김장(고무 판, 채색/1984)	√	
49	전수천(1947~/한국) 사물에서 상상을 읽다(바코드, 지구본/2007)	√	
50	리치(1959~/미국) 종이컵 소원도(종이컵/2011)		√
51	아이웨이웨이(1957~.중국) 해바라기 씨(설치/2010)	√	
52	최민식(1928~2013/한국) 부산(흑백 사진/1964)	√	
53	브레송(1908~2004/프랑스) 시칠리의 팔레르모에서(실버 프린트/1971)	√	
54	로니스(1910~2009) 작은 파리지앵(실버 프린트/1952)	√	
55	맥커리(1950~/미국) 파키스탄 어린 소녀(디지털프린트/2002)	√	
56	미야자키 하야오(1941~/일본) 벼랑 위의 포뇨(셀애니메이션/2008)	√	
	합 계(명)	49	7
	합 계(%)	87.5	12.5

② 작가 성별 분포: 비상교육

<표 III-10> 작가 성별 분포(비상)

번호	작가명/작품명	분류	
		남성	여성
1	호머(1836~1910/미국) 채찍 끊기 놀이(유채/1872)	√	
2	시슬레(1839~1899/프랑스) 모레의 포플러 길(유채/1888)	√	
3	오용길(1946~/한국) 서울-서울역(수묵 채색/2005)	√	
4	안윤모(1962~/한국) 보름달 아래 휴식(아크릴/2011)	√	
5	마그리트(1898~1967/벨기에) 겨울비(유채/1953)	√	
6	크레코브(1968~/미국) 생명의 책(스테인리스/2010)	√	
7	오윤(1946~1986/한국) 낮도깨비(목판화/1985)	√	
8	케이건, 저스틴(미국) 빗 모양 자전거 거치대(나무/2011)	√	
9	러브그로브(1958~/영국) 태양나무(가로등/2007)	√	
10	성연주(1986~/한국) 드레스(연근/2009)		√
11	듀란(1969~/에스파냐) 사마귀(나뭇잎/2011)	√	
12	이명호(1975~/한국) 트리 #7(디지털 프린트/2007)	√	
13	강익중(1960~/한국) 행복한 달항아리(나무/2011)	√	
14	이이남(1969~/한국) 달항아리 풍경(디지털 동영상/2009)	√	
15	김환기(1913~1974/한국) 항아리(유채/1955~1956)	√	
16	김홍도(1745~/한국) 서직수 초상(수묵담채/1796)	√	
17	이명기(1756~1813이전/한국) 서직수 초상(수묵담채/1796)	√	
18	다비드(1748~1825/프랑스) 나폴레옹(유채/1800)	√	
19	소마 마스(1934~/인도) 마을(소똥,쌀가루/2003)	√	
20	정선(1676~1759/한국) 인곡유거도(수묵담채/조선 시대)	√	
21	치바이스(1863~1957/중국) 평화와 변영(수묵 채색/1944)	√	
22	김성기(1973~/한국) 모래성(디지털 이미지)	√	
23	김기찬(1938~2005/한국) 서울 중립동(사진/1980)	√	
24	홀레벤(1977~/독일) 타잔과 제인(사진/2007)	√	
25	권오성(1971~/한국) 강아지 똥(클레이 애니메이션/2003)	√	

26	오슬로(1943~/프랑스) 밤의 이야기(실루엣 애니메이션/2011)	✓	
27	미야자키 하야오(1941~/일본) 벼랑 위의 포노(셀 애니메이션/2008)	✓	
28	스탠튼(1965~/미국) 월-E(3D 애니메이션/2008)	✓	
29	세잔(1839~1906/프랑스) 체리와 복숭아가 있는 정물(유채/1887)	✓	
30	스펜서(1891~1959/영국) 털실 가게(유채/1939)	✓	
31	가자(1948~/미국) 레이노사 시장(구아슈/1987)		✓
32	권진규(1922~1973/한국) 손(테라 코타/1968)	✓	
33	리히텐슈타인(1932~1997/미국) 치즈 자화상(유채/1977)	✓	
34	김중영(1915~1982/한국) 자화상(먹/1975)	✓	
35	뒤뷔페(1901~1985/프랑스) 자화상(종이에 마커/1966)	✓	
36	백남준(1932~2006/한국) 스튜디오 안에서(퍼포먼스/1983)	✓	
37	해링(1959~1990/미국) 무제(비닐에 아크릴/1989)	✓	
38	뒤피(1877~1953/프랑스) 파리 1934(유채/1934)	✓	
39	황주리(1957~/한국) 여행에 관한 명상(여행용 가방, 아크릴/2012)		✓
40	이대원(1921~2005/한국) 농원(유채/1994)	✓	
41	유한(1973~/네덜란드) 파벨라 프로젝트(페인팅/2008)	✓	
42	클라스(1977~/네덜란드) 파벨라 프로젝트(페인팅/2008)	✓	
43	넵(1947~/미국) 첫 번째 교향곡(세라믹, 백생광/2006)	✓	
44	알라크바로브(1979~/아제르바이잔) 빛나는 그림자(플라스틱/2011)	✓	
45	정태섭(1954~/한국) 꽃의 빅뱅(방사선으로 찍은 꽃/2007)	✓	
46	멜리아슨(1967~/덴마크) 다면체 램프(색유리, 램프/2011)	✓	
47	치홀리(1941~/미국) 상들리에(색유리/2001)	✓	
48	생팔(1930~2002/프랑스) 미의 세 여인(세라믹 타일/1999)	✓	
49	최소영(1980~/한국) 옥상 위 빨래(청바지 천, 단추/2010)		✓
50	피카소(1881~1973/에스파냐) 인형을 든 마야(유채/1938)	✓	
51	스텔라(1936~/미국) 꽃이 피는 구조물(스테인리스/1996)	✓	
52	정종미(1957~/한국) 보자기 부인(모시, 비단, 광목, 염료/2007)		✓
53	쇠라(1859~1891/프랑스) 서커스(유채/1891)	✓	
54	이용로(1904~1989/한국) 군상(수묵/1985)	✓	
55	김홍도(1745~?/한국) 마상청앵(수묵 담채/조선시대)	✓	
	합 계(명)	50	5
	합 계(%)	90.9	9.1



③ 작가 성별 분포: 아침나라

<표 III-11> 작가 성별 분포(아침나라)

번호	작가명/작품명	분류	
		남성	여성
1	길크리스트(1959~/영국) 새들을 위한 집(합판/2010~2013)	√	
2	조엘슨(1969~/영국) 새들을 위한 집(합판/2010~2013)		√
3	김도명(1969~/한국) 차 한잔 하시겠습니까?(골판지, 흙/2006)	√	
4	박진성(1982~/한국) 나의 노래(수지에 아크릴/2011)	√	
5	이순구(1960~/한국) 웃다 소년(유채/2012)	√	
6	최정화(1961~/한국) 들꽃(폴리에스테르/2007)	√	
7	류신(1976~/한국) 기억을 걷는 시간(타일, 스테인리스/2011)	√	
8	박수근(1914~1965/한국) 길(유채/1964)	√	
9	박수근(1914~1965/한국) 나무(유채/1965)	√	
10	박수근(1914~1965/한국) 시장(유채/1950년대)	√	
11	박수근(1914~1965/한국) 아기 보는 소녀(유채/1953)	√	
12	박수근(1914~1965/한국) 아기 보는 소녀(유채/1963)	√	
13	박수근(1914~1965/한국) 모자(유채/1961)	√	
14	윤병락(1968~/한국) 가을 향기(유채/2010)	√	
15	올덴버그(1929~/미국) 사과 속(스테인리스 스틸, 우레탄/1990)	√	
16	브루건(1942~2009/미국) 사과 속(스테인리스 스틸, 우레탄/1990)	√	
17	고흐(1853~1890/네덜란드) 신발(유채/1886)	√	
18	이미경(1970~/한국) 퇴촌 버스 정류장 가게(잉크 펜/2012)		√
19	킨스터블(1776~1837/영국) 솔즈베리 대성당(유채/1826)	√	
20	모네(1840~1926/프랑스) 건초 더미-여름의 끝(유채/1890~1891)	√	
21	모네(1840~1926/프랑스) 건초 더미-여름의 끝, 아침(유채/1890)	√	
22	모네(1840~1926/프랑스) 건초 더미-눈의 효과(유채/1890~1891)	√	
23	최소영(1980~/한국) 부산 영도다리(청바지, 혼합재료/2013)		√
24	루소(1844~1910/프랑스) 축구 하는 사람들(유채/1908)	√	
25	백희나(1971~/한국) 장수탕 선녀님(부분/삽화/2102)		√
26	김길만(1959~/한국) 서편제(모래/2013)	√	
27	달리(1904~1989/미국) 늘어진 시계(유리 점토/1988)	√	
28	김미인(1965~/한국) 로치타(플라스틱, 우레탄/2007)		√
29	서정국(1958~/한국) 로치타(플라스틱, 우레탄/2007)	√	
30	황용진(1955~/한국) 나의 풍경 0844(유채/2008)	√	
31	카텔란(1960~/이탈리아) 작은 나(혼합 재료/1999)	√	

32	카트린(1971~/프랑스) 행복한 아침 식사(사진/2007)	√
33	에르카(1952~/폴란드) 딸기 정원(아크릴/2010)	√
34	칸딘스키(1866~1944/프랑스) 구성 7(유채/1913)	√
35	콜더(1898~1976/미국) 더블 공(금속에 채색/1953)	√
36	유영운(1972~/한국) 백설 공주(잡지, 프린트, 스티로폼/2009)	√
37	비어든(1911~1988/미국) 검은 마돈나와 아이(혼합 재료/1969)	√
38	강세황(1713~1791/조선) 영통동 입구(한지에 수묵담채/1756)	√
39	변상벽(1763/조선) 묘작도(비단에 담채/조선 시대)	√
40	박대성(1945~/한국) 금강전도(한지에 수묵 담채/2000)	√
41	오용길(1946~/한국) 봄의 기운(한지에 수묵 담채/1997)	√
42	곽태일(1970~/한국) 어울림(화강암/2008)	√
43	강병인(1962~/한국) 봄, 피어나는 한글(종이에 먹/2008)	√
44	정종인(1965~/한국) 한글 꽃(금속/2013)	√
45	손민정(1964~/한국) 김소월의 시-진달래 꽃(천에 실크스크린/2010)	√
46	김규석(1958~/한국) 떡살(나무/2004)	√
47	오윤(1946~1986) 정 2(광목에 잉크/1985)	√
48	이철수(1954~/한국) 수박 행상-언덕(종이에 잉크/2004)	√
49	김슨(1982~/캐나다) 플러그(스텔실/2007)	√
50	뱅크시(1974~/영국) 소녀(스텔실/2000)	√
51	원성원(1972~/한국) 방주(컴퓨터 프린트/2013)	√
52	권오상(1974~/한국) 봄박스(컴퓨터 프린트/2011)	√
53	스코클런드(1946~/미국) 그린하우스(사진/1990)	√
54	김하준(1974~/한국) 백조(모래 애니메이션/2011)	√
55	발라(1871~1958) 끈에 묶인 개의 움직임(유채/1912)	√
56	아키요시(1961~/일본) 뱀의 회전(컴퓨터 그래픽/2003)	√
57	오슬로(1943~/프랑스) 밤의 이야기(그림자 애니메이션/2011)	√
58	우홀러(1977~/멕시코) 선인장 의자(천, 나무/2010)	√
59	브라운(1956~/이탈리아) 테이프 절단기(플라스틱/1998)	√
60	이달우(1981~/한국) 티백 디자인(천연 펄프/2007)	√
61	룽거버거(1934~1999/미국) 바스켓 빌딩(1997)	√
62	슈턴쉬 잘레스키(1976~/폴란드) 구부러진 집(2004)	√
63	윤종석(1970~/한국) 산다는 것(캔버스에 아크릴/2012)	√
64	강성훈(1981~/한국) 바람-말Ⅱ(구릴, 스테인리스 스틸/2012)	√
65	골드(1935~/미국) 카이쿠 V(철판에 채색/1990)	√
66	쿠사마 야요이(1929~/일본) 야변(캔버스에 아크릴/1989)	√
67	카푸어(1954~/영국) 큰 나무와 눈(스테인리스 스틸/2009)	√

68	인디애나(1928~/미국) 사랑(프린트/1996)	✓
69	생팔(1930~2002/프랑스) 농구 선수 23(합성수지/1999)	✓
70	망델브로(1924~2010/미국) 프랙털 이미지(디지털 아트/2003)	✓
71	문로(1959~/영국) 만개한 수련(cd/2012)	✓
72	안중연(1952~/한국) 빛의 에센(유리 캐스팅, LED, 강철/2009)	✓
73	한기창(1966~/한국) 운명애(폴리카보네이트, 필름/2012)	✓
74	김홍도(1745~/조선) 서당도(종이에 수묵 담채/조선 시대)	✓
75	정광호(1959~/한국) 달 향아리(구리선/2007)	✓
76	권기수(1972~/한국) 하얀 숲(캔버스에 아크릴/2008)	✓
77	신윤복(1758?~1820~/조선) 생선 장수(비단에 담채/1805년 경)	✓
78	쿠르베(1819~1877/프랑스) 안녕하세요, 쿠르베 씨(유채/1854)	✓
79	미켈란젤로(1475~1564/이탈리아) 모세(대리석/1513~1515)	✓
80	이중섭(1916~1956/한국) 춤추는 가족(종이에 유채/1953~1954)	✓
81	마티스(1869~1954/프랑스) 춤(캔버스에 유채/1910)	✓
82	가르갈로(1881~1934/에스파냐) 춤추는 사람(동/1934)	✓
83	김홍도(1745~/조선) 춤추는 아이(종이에 담채/조선시대)	✓
84	피카소(1881~1973/에스파냐) 게르니카(유채/1937)	✓
85	세잔(1839~1906/프랑스) 병과 바구니가 있는 정물(유채/1890~1894)	✓
86	몽크(1863~1944/노르웨이) 절규(템페라,파스텔/1893)	✓
87	콜더(1898~1976/미국) 물고기(혼합 재료/1947)	✓
88	백남준(한국→미국/1932~2006) 로봇(혼합 재료/1988)	✓
89	김동유(1965~/한국) 마릴린 먼로vs마오 주석(유채/2005)	✓
90	아르망(1928~2005/프랑스→미국) 주전자들의 모임(용접/1962)	✓
91	올덴버그(1929~/스웨덴→미국) 부드러운 비올라 1/2(혼합 재료/2002)	✓
92	크리스토(1935~/불가리아→미국) 감싸인 나무(혼합 재료/1998)	✓
93	클로드(1935~2009/모로코→미국) 감싸인 나무(혼합 재료/1998)	✓
94	강익중(1960~/한국) 행복한 세상(혼합 재료/2008)	✓
95	기라드(1907~1993/미국) 나무 인형(나무에 채색/1963)	✓
96	손동현(1980~/한국) 막강이인조술액동기도(한지에 채색/2005)	✓
97	치홀리(1941~/미국) 태양(유리/2006)	✓
98	신사임당(1504~1551/조선) 가지와 방아깨비(한지에 채색/조선시대)	✓
99	레오나르도 다빈치(1452~1519/이탈리아) 모나리자(유채/1504~1506)	✓
	합 계(명)	86 13
	합 계(%)	86.9 13.1

④ 작가 성별 분포: 천재교육

<표 III-12> 작가 성별 분포(천재교육)

번호	작가명/작품명	분류	
		남성	여성
1	소트사스(1917~2007/이탈리아) 칼톤 책상(라미네이트/1981)	√	
2	노동식(1973~/한국) 토네이도(숨, 혼합 재료/2009)	√	
3	쿤스(1955~/미국) 바닷가재(알루미늄에 채색/2003)	√	
4	쇠라(1859~1891/프랑스) 그랑자트 섬에서 바라본 풍경(유채/1888)	√	
5	이종송(1962~/한국) 움직이는 산-Red Mauntain(흙에 채색/2012)	√	
6	오승윤(1940~2006/한국) 금강산(캔버스에 유채/2005)	√	
7	이중섭(1916~1956/한국) 흰 소(종이에 유채/1955)	√	
8	천경자(1924~2015/한국) 장미와 여인(한지에 채색/1981)		√
9	권기수(1972~/한국) 파란 하늘(아크릴 물감/2010)	√	
10	클레(1879~1940/스위스) 장미 정원(종이에 유채와 잉크/1920)	√	
11	민경갑(1933~/한국) 소나무가 있는 산(수묵 채색/1998)	√	
12	바자렐리(1906~1997/헝가리→프랑스) Izzo-MC(아크릴 물감/1969)	√	
13	모네(1840~1926/프랑스) 루앙 대성당(유채/1894)	√	
14	심영철(1957~/한국) 기념 정원(스틸에 특수 색/2013)	√	
15	샤갈(1887~1985/러시아→프랑스) 나의 마을(캔버스에 유채/1911)	√	
16	마네(1832~1883/프랑스) 피리부는 소년(캔버스에 유채/1866)	√	
17	장육진(1917~1990/한국) 자동차가 있는 풍경(캔버스에 유채/1953)	√	
18	김득신(1754~1822/한국) 야묘도추(종이에 담채/조선시대)	√	
19	판에이크(1395~1441/네덜란드) 아르놀피니의 결혼(유채/1434)	√	
20	오지호(1905~1982/한국) 남향집(캔버스에 유채/1939)	√	
21	피카소(1881~1973/에스파냐) 세 악사(캔버스에 유채/1921)	√	
22	백남준(1932~2006/한국→미국) 호랑이는 살아 있다(텔레비전/1999)	√	
23	올덴버그(1929~/스웨덴→미국) 부드러운 비올라 1/2(캔버스/2002)	√	
24	브루건(1942~2009) 부드러운 비올라 1/2(캔버스, 나무/2002)		√
25	서도호(1962~/한국) 바닥(플라스틱, 유리판, 석탄산 판/1997~2002)	√	
26	세자르(1921~1998/프랑스) 엄지손가락(청동/1988)	√	
27	바스키아(1960~1988/미국) 아펜첼의 브루노(아크릴 물감/1982)	√	
28	폴록(1912~1956/미국) 하얀빛(유채, 에나멜, 알루미늄 페인트/1954)	√	
29	최소영(1981~/한국) 관광 도시(청바지, 단추, 스펅글/2010)		√
30	고갱(1948~1903/프랑스) 아레아레아(캔버스에 유채/1892)	√	
31	이창연(1955~2010/한국) 바다 이야기-포항집(캔버스에 유채/2003)	√	
32	카유보트(1848~1894/프랑스) 정원사들(캔버스에 유채/1875~1877)	√	
33	원석연(1922~2003/한국) 굴비(종이에 연필/1968)	√	
34	윤병락(1969~/한국) 초록 사과(한지에 유채/2010)	√	
35	뒤바쟁(1904~1980/스위스) 행복한 사자(종이에 인쇄/ 1975)	√	
36	백희나(1971~/한국) 구름빵(애니메이션/2010)		√
37	최혜광(1970~/한국) 환상 정원(레진에 우레탄 도장/2007)	√	

38	쿠시(1965~러시아) 라만차 지방의 동물상(캔버스에 유채/1998)	✓	
39	칸딘스키(1866~1994/러시아→프랑스) 추상 수채(연필, 수채물감/1910)	✓	
40	판두스뷔르흐(1883~1931/네덜란드) 구성에 대한 연구(연필/1916)	✓	
41	이두식(1947~2013/한국) 잔칫날(캔버스에 아크릴 물감/2012)	✓	
42	미로(1893~1983/에스파냐) 쓰다듬는 새(거북 등껍질, 밀짚모자/1967)	✓	
43	키타오카 이키요시(1961~일본) 가을의 늪(컴퓨터 그래픽/2000)	✓	
44	에스허르(1898~1972/네덜란드) 폭포(석판화/1961)	✓	
45	마그리트(1898~1976/벨기에) 백지 위임장(캔버스에 유채/1965)	✓	
46	콜즈워드(1956~영국) 고요한 새벽(나뭇가지/1988)	✓	
47	박형필(1962~한국) 어왕생 II(철사, 재활용 합석판/2012)	✓	
48	런텐바우어 알로이스(1947~오스트리아) 성장하는 배(나무/2012)	✓	
49	훈덴르트바서(1928~2000/오스트리아) 블루마우 온칭 마을-롤링힐(1997)	✓	
50	보테로(1932~콜롬비아) 곡예사(캔버스에 유채/2008)	✓	
51	김경민(1971~한국) 찰칵(청동에 아크릴 물감/2012)		✓
52	키스(1887~1956/영국) 정원 초하루 나들이(채색 목판화/1921)		✓
53	추이저하이(1973~중국) 말타기(채색 목판화/2012)	✓	
54	브란쿠시(1876~1957/루마니아→프랑스) 왕 중 왕(나무/1938)	✓	
55	레오나르도 다빈치(1452~1519/이탈리아) 모나리자(유채/1503~1506)	✓	
56	고흐(1853~1890/네덜란드) 해바라기(캔버스에 유채/1888)	✓	
57	김홍도(1745~?/한국) 사인암도(종이에 수묵 채색/조선시대)	✓	
58	조보희(1964~한국) 15분 폭우, 청계천에 고립된 시민(사진/2012)		✓
59	베시(1962~영국) 불도저(엑스선 사진/2007)	✓	
60	지글러(1972~독일) 눈속임의 예술(사진/2009)	✓	
61	호크니(1937~영국) 1985년 8월 7,8,9일 파리 퀴르스탕베르 광장(사진/1985)	✓	
62	브룬(1983~덴마크) 동지 의자(자작나무/2010)		✓
63	토레스(1976~콜롬비아) 연필깎이(스테인리스 스틸/2013)	✓	
64	정선(1676~1759/한국) 금강전도(종이에 수묵 담채/조선시대)	✓	
65	정중미(1957~한국) 황진이(한지, 비단, 모시/2008)		✓
66	김민수(1978~한국) 호랑이가 전하는 현대의 부귀영화(아크릴/2010)		✓
67	장한중(1768~1815/한국) 책가도(종이에 채색/조선시대)	✓	
68	인현 왕후(1667~1710/한국) 신한첩(화선지에 먹/조선시대)		✓
69	김명자(1954~한국) 가슴에 남는 것(화선지에 먹/2013)		✓
70	손효진(1978~한국) 한글 서체를 활용한 컵(도기/2011)		✓
71	이응로(1904~1989/한국) 문자 추상(수묵 담채/1976)	✓	
72	강병인(1962~한국) 꽃(화선지에 먹/2009)	✓	
73	이근세(1971~한국) 꽃(철/2011)	✓	
74	김홍도(1745~?/한국) 서당(한지에 채색/조선시대)	✓	
75	벨스키(1868~1945/러시아) 교실 문 앞에서(캔버스에 유채/1897)	✓	
76	리고(1659~1743/프랑스) 루이 14세 초상(캔버스에 유채/1701)	✓	
77	채용신(1850~1941/한국) 고종 황제 어진(비단에 채색/20세기 초기)	✓	
78	로댕(1840~1917/프랑스) 칼레의 시민(청동/1889)	✓	
	합 계(명)	65	13
	합 계(%)	83.3	16.7

⑤ 작가 성별 분포: 천재교과서

<표 III-13> 작가 성별 분포(천재교과서)

번호	작가명/작품명	분류	
		남성	여성
1	골즈워디(1956~/영국) 단풍나무 조각(나뭇잎/1986)	√	
2	김용민(1971~/한국) 초대(나뭇가지 설치/2012)	√	
3	김덕기(1969~/한국) 행복한 논과 밭 사이로(캔버스에 아크릴/2012)	√	
4	우드(1891~1942/미국) 어린 옥수수밭(목판에 유채/1931)	√	
5	샤갈(1887~1985/러시아→프랑스) 에펠 탑의 신랑 신부(유채/1938)	√	
6	황용진(1955~/한국) 자동차 여행 0830(유채/2008)	√	
7	아르침볼로(1527~1593/이탈리아) 채소 기르는 사람(유채/1590)	√	
8	달리(1904~1989/에스파냐→미국) 시간의 단면(청동/1977~1984)	√	
9	칸딘스키(1866~1944/러시아→프랑스) 무제(종이에 수채, 잉크/1910)	√	
10	마티스(1869~1954/프랑스) 이카로스(석판화/1947)	√	
11	몬드리안(1872~1944/네덜란드) 브로드웨이 부기우기(유채/1942~1943)	√	
12	피카소(1881~1973/에스파냐) 정원의 여인(유채/1938)	√	
13	마티스(1869~1954/프랑스) 음악(캔버스에 유채/1939)	√	
14	드가(1834~1917/프랑스) 무대 위의 무희(파스텔/1876~1877)	√	
15	이중섭(1916~1956/한국) 애들과 물고기와 계(종이에 수채/1950)	√	
16	김상구(1945~/한국) NO.270(목판화/1984)	√	
17	이서미(1972~/한국) 먼 길(모노타이프/2008)		√
18	워홀(1928~1987/미국) 캠벨 수프 깡통 상자(스텐실/1962)	√	
19	김홍도(1745~/한국) 낭원투도(한지에 수묵 담채/조선시대)	√	
20	천경자(1924~/한국) 꽃(한지에 수묵 채색/1970)		√
21	이상봉(1954~/한국) 한글 드레스(천/2009)	√	
22	루소(1844~1910/프랑스) 이국적 풍경, 고릴라와 인디언의 싸움(유채/1910)	√	
23	김환기(1913~1974/한국) 달밤의 화실(실크 스크린/1957)	√	
24	쇠라(1859~1891/프랑스) 그랑드 자트 섬의 일요일 오후(1884~1886)	√	
25	고흐(1853~1890/네덜란드) 해바라기(캔버스에 유채/1888)	√	
26	워홀(1928~1987/미국) 꽃(실크 스크린/1964)	√	
27	백남준(1932~2006/한국→미국) 다다익선(비디오 설치/1988)	√	
28	뒤러(1471~1528/독일) 어린 토끼(종이에 구아슈/1502)	√	
29	고갱(1848~1903/프랑스) 기쁨(캔버스에 유채/1892)	√	
30	스미스(1942~/미국) 고양이와 노란 꽃(종이에 수채/1993)	√	
31	김보희(1952~/한국) 정(종이에 수묵 채색/1985)		√
32	이중섭(1916~1956/한국) 황소(종이에 유채/1953)	√	
33	이양원(1944~/한국) 대자연의 합창(화선지에 혼합 재료/2006)	√	
34	판에이크(1395~1441/네덜란드) 아르놀피니의 결혼식(목판에 유채/1434)	√	

35	룩웰(1894~1978/미국) 구슬치기 챔피언(캔버스에 유채/1939)	▽	
36	김경민(1971~/한국) 집으로(강철, 합성수지에 채색/2011)	▽	
37	피사로(1830~1903/프랑스) 겨울 아침의 몽마르트르 거리(유채/1897)	▽	
38	고흐(1853~1890/네덜란드) 까마귀가 있는 밀밭(유채/1890)	▽	
39	피카소(1881~1973/에스파냐) 황소 머리(가죽, 금속 등 혼합재료/1942)	▽	
40	한선현(1968~/한국) 염소(나무/2008)	▽	
41	이왈중(1945~/한국) 제주 생활의 중도(목조 위에 혼합/2004)	▽	
42	김재영(1981~/한국) 휴식(나무, 금속판/2011)	▽	
43	드라비(1955~/프랑스) 블리커 사육 공사 가림막(프랑스 파리/2007)	▽	
44	게리(1929~캐나다→미국) 물고기(스테인리스강, 유리/1992)	▽	
45	주명덕(1940~/한국) 완주 동상면(사진/1974)	▽	
46	원성원(1972~/한국) 일곱 살-돼지 저금통의 도움(C-프린트/2010)	▽	
	합 계(명)	43	3
	합 계(%)	93.5	6.5

각 교과서 별로 작가의 성별 분포를 분석한 결과 금성은 남성 작가 87.5%, 여성 작가 12.5%, 비상은 남성 작가 90.9%, 여성 작가 9.1%, 아침나라는 남성 작가 86.9%, 여성 작가 13.1%, 천재교육은 남성 작가 83.3%, 여성 작가 16.7%, 천재교과서는 남성 작가 93.5%, 여성 작가 6.5%를 분포를 보였다.

이는 여성작가의 빈곤성에 기인하기 보다는 기존의 모든 시각이 남성의 시각에서 구성되고 보급되어 역사적으로 존재해 온 많은 여성작가에 대한 정보가 축적되지 못했다는 점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오재림·정해숙, 2002, p.168). 앞으로도 작가 성별 분포가 위와 같이 극단적으로 반영이 된다면 미술교과서 또한 여성작가에 대한 정보를 축적하지 못하고 아동에게 남성중심의 시각을 제공하게 될 우려가 있다.

## 라. 비현실성 (unreality)

### 1) 여성관련 이슈 및 양성평등 교육 내용을 다루고 있는가?

기존 교과서에는 다양한 진로에 대해 노력하는 양성의 모습이나 직업세계나 일상생활에 존재하는 성차별적 편견으로 인해 여성의 권리 및 인권이 침해되고 있는 모습을 찾아보기 힘들다(오재림·정해숙, 2002, p.155). 이는 교과서가 논란이 될 수 있거나 드러내고 싶지 않은 현실을 배제하고, 논란거리가 되지 않

을 만한 내용을 제시하는 성차별 요소인 ‘비현실성(unreality)’의 특성이다.

본 연구에서는 미술교과서에서 아동들에게 고정적인 성편견이나 양성평등적 상황에 대해 생각해보고 비판할 수 있는 양성평등 의식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는지 살펴보고, 이러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사례를 제시하고자 한다. 단, 5종 교과서 중 양성평등 교육 내용이 드러나지 않은 교과서는 제외하고, 포함하고 있는 내용만 제시한다.

① 비상교육 : 4. 함께 걷는 길(기초)

비상교육의 미술교과서에서 양성평등 교육 내용은 4단원 함께 걷는 길의 기초 영역인 ‘거리 속 기호’에서 나타나고 있다. 해당 제재는 거리에서 볼 수 있는 기호를 이해하고 새롭게 만들어 보는 제재로, ‘픽토그램’을 다루고 있다. 그 내용은 [그림 III-1]과 같다.

[그림 III-1] 양성평등 교육 내용(비상교육)



주. 출처 미술 5~6 (p. 33) 박은덕 외 저. 2017. 비상교육.

기존의 픽토그램은 엄마가 아이를 돌보는 모습이었으나 아빠와 함께 아이를 돌보는 픽토그램을 제시하여 아동들이 비교하고 비판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는 육아는 여성의 활동이라는 고정적인 성편견에 대한 비판적인 사례를 제시한 것으로, 다양한 시각에서 자유롭게 성역할 개념을 생각해 볼 수 있는 양성평등 의식 교육의 기회를 제공한 것이다.



② 천재교과서 : 9. 소통의 세계로(심화)

천재교과서 교과서에서 양성평등 교육 내용은 9단원 소통의 세계로의 심화 영역인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어요’에서 나타나고 있다. 해당 제재는 시각 이미지로 의미를 전달하는 방식을 이해하고, 느낌과 생각을 시각 이미지로 표현하는 제재로, 양성평등교육에 해당하는 활동은 동화 속 시각 이미지의 고정된 의미를 새롭게 바꿔 표현하는 활동이다. 그 내용은 [그림 III-2]과 같다.

[그림 III-2] 양성평등 교육 내용(천재교과서)



해당 활동에서는 ‘동화 속 여자주인공들은 대부분 아름답고 착한 것 같아.’, ‘맞아 그리고 마지막에는 멋진 남자 주인공을 만나 행복하게 살지.’, ‘아름답지 않으면 착하지 않은 걸까?’, ‘멋진 남자 주인공을 만나야 행복해 지는 걸까?’ 와 같은 대화를 통해 동화 속에 반영된 ‘예쁘고, 착하고, 남성에 의존하는 여성성’이라는 고정적인 성편견에 대해 비판적으로 사고할 수 있는 사례를 제시하였으며, 기존 동화 속 신데렐라 이야기를 ‘스스로 능력을 개발하고 가꾸면서 행복을 찾아가는 여성’으로 바꾸어 표현하는 과정을 통하여 자유롭게 성역할 개념을 생각해볼 수 있는 양성평등 의식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였다.

## IV. 요약 및 결론

### 1. 요약

2009 개정 교육과정에 의한 5~6학년 미술교과서를 양성평등적 관점에서 분석 기준을 세워 비교·분석하고, 요약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가. 여성의 희소성

미술교과서에서 ‘여성의 희소성’이라는 성차별적 요소가 드러나 있는지 살펴보기 위하여, 교과서 속 등장인물의 성별 분포를 사진과 그림을 나누어서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사진 속 등장인물의 성별 분포는 양성의 비율이 50%의 근사치를 보이고 있으므로, 양적인 측면의 양성평등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

둘째, 그림 속 등장인물의 성별은 대체로 동등한 비율로 분포되어 있지만, 사진 속 등장인물의 성별 분포에 비해 불균형한 경향이 있다. 불균형이 나타난 원인은 남성에 관한 교육내용이 채택된 결과 그에 부합하여 남성 그림 또한 증가했거나 내용과 상관없이 남성 그림의 수가 우세하여 불균형 초래한 데에 그 원인이 있다.

#### 나. 고정적인 성편견

미술교과서에서 ‘고정적인 성편견’이라는 성차별적 요소가 드러나 있는지 살펴보기 위하여, ① 주요 인물(학습도우미)의 외모 묘사에서의 성편견 ② 체육 활동 묘사에서의 성편견 ③ 직업 활동 묘사에서의 성편견으로 나누어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각 교과서 별로 주요 인물(학습도우미)의 외모 묘사에서 드러난 고정적인 성편견은 남성은 짧고, 여성은 긴 머리카락이나 묶은 머리로 표현되는 것, 남성은 주로 초록색, 파란색 계열의 의상이고, 여성은 주로 분홍색 계열의 의상이나 치마

를 입고 있는 것이 있고, 남성이 여성에 비해 몸집이 크고, 여성에게 무언가를 가르쳐 주고 있는 것 등이 있었다.

둘째, 체육 활동 묘사에서는 모든 교과서에서 남성이 체육활동을 하고 있는 묘사가 여성에 비해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었다. 또한 체육활동의 내용적인 측면에서도 남성은 축구, 농구, 탁구 등 활동량이 많고 경쟁적인 체육활동을 하고 있는 모습이 묘사되었고, 여성은 공기놀이, 피겨스케이팅 등 정서적인 체육활동을 하고 있는 모습으로 묘사되었다는 점 등 고정적인 성편견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셋째, 직업 활동 묘사에서는 과거 교과서에 비해 양적인 측면에서는 직업 활동을 하고 있는 양성의 분포가 동등하게 나타났으나, 미술 작가는 남성의 비율이 크게 높고, 선생님과 도슨트는 여성의 비율이 100%로 나타나는 등 특정 직업에서 고정적인 성편견을 보였다.

#### 다. 불균형과 선택성

미술교과서에서 '불균형과 선택성'이라는 성차별적 요소가 드러나 있는지 살펴보기 위하여 각 교과서의 참고작품을 정리하고, 작가의 성별 분포를 분석한 결과, 모든 교과서에서 남성 작가와 여성 작가의 비율은 대략 9:1, 8:2 정도로 큰 차이를 보였으며, 남성 작가의 시각을 선택적으로 반영하여 교과서에 반영된 여성작가의 비율이 크게 떨어지는 불균형을 보였다.

#### 라. 비현실성

미술교과서에서 '비현실성'이라는 성차별적 요소를 살펴보기 위해 교과서에서 양성평등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는지 사례를 찾은 결과, 비상교육과 천재교과서에서 그 사례를 각각 1건씩 찾을 수 있었다. 비상교육에서는 픽토그램에 내재된 성편견을 비판적으로 바라보고 해석할 수 있는 활동을, 천재교육에서는 동화 속에 고정된 이미지를 찾고, 고정적인 성편견에서 탈피해보는 활동을 전개하여 아동들에게 양성평등 의식을 개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 2. 결론 및 제언

양성평등(gender equality)은 사회가 수평적 다원주의로 발전함에 따라 끊임없이 요구되고 있는 사회적 요구이다. 미술교육은 아동을 사회의 요구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건강한 사고를 가진 구성원으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돕는데 그 목적이 있기 때문에 양성평등에 관한 내용을 미술교과에 반영해야 한다.

교과서는 학생들이 미술교육 접하는 첫 번째 통로이며, 교과서에 담겨있는 학습 내용과 관점은 학생들의 지식과 가치관으로 발현된다. 따라서 교과서에서 양성평등교육 내용을 반영하기 위해 양성평등적 관점에서 교과서 평가 기준을 세우고 이를 통해 교과서를 분석하는 과정 반드시 필요하다.

양성평등적 분석 기준을 통해 교과서를 분석한 결과, 현행 교과서는 과거 교과서에 비해 여성의 희소성 측면에서의 성차별이 많이 해소된 점을 보아 양적인 측면의 양성평등교육이 크게 향상되었으며, 일부 교과서에서는 양성평등 의식 교육 기회가 제공되고 양성평등 이슈가 다뤄지는 등 질적인 측면의 양성평등교육도 일부 이루어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양성의 성별특성 및 활동을 묘사하는 데서 고정적인 성편견이 나타나고, 교과서의 그림이나 참고 작품 작가의 성별 분포에서 남성이 더 큰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이와 같은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개선방향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교과서에서 등장인물의 성별특성이 다양하게 묘사되어야 한다. 남성성으로 대표되는 ‘짧은 머리, 파란색, 초록색, 바지, 활기참’ 과 여성성으로 대표되는 ‘긴 머리, 묶은 머리, 치마, 분홍색, 친절함’ 등이 교과서의 삽화나 내용을 통해 고정적으로 인식되지 않도록 교과서에서 등장하는 인물들의 현실의 다양함을 반영하여 묘사되어야 한다.

둘째, 교과서에서 등장인물의 활동 모습이 성역할에 구애되지 않고 묘사되어야 한다. 체육, 가사, 직업 활동 등에서 특정성별을 비중 있게 묘사한다면 해당 활동에 고정적인 성편견이 자리 잡을 수 있다. 따라서 여성의 체육활동 묘사를 증가시키고, 정서적인 체육활동 외에도 다양한 체육활동을 하고 있는 모습을 묘사해야 한다.

직업 활동 묘사에 있어서는 미술교과서에서 특성 있게 다루어질 수 있는 ‘미술 작가’, ‘도슨트’, ‘큐레이터’와 같은 직업은 양성의 비율을 동등하게 등장시켜 양성 모두에게 다양한 직업 탐색 기회를 제공하고, 역할 모델을 제시해야 한다. 또한 ‘선생님’도 여성과 남성의 비율을 동등하게 등장시켜 직업 활동에서의 성편견을 제거해야 한다.

셋째, 여성 작가의 비율을 남성 작가의 비율과 동등하게 반영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그동안 이루어져 왔던 양성평등교육에 대한 연구와 논의들로 인해 교과서 내용에서 소극적 양성평등의 내용은 많이 개선되었으나 아직도 역사적 인물 중 여성의 비율이 제한되어 있다. 그동안 축적되어 온 남성 작가에 대한 정보에만 의존하지 않고 역사적인 여성 작가들을 발굴하고, 여성 작가들의 정보를 교과서를 통해 축적한다면, 불균형하던 교과서 등장인물의 성별 분포가 평등을 이룰 수 있었던 것처럼 여성 작가들의 성별 분포에서도 평등을 이룰 수 있을 것이다.

넷째, 성차별적인 상황을 제시하고 양성평등 의식을 개선할 수 있는 활동을 제시해야 한다. 시각 이미지나 기호, 캠페인 등의 학습 제재는 양성평등교육을 반영할 수 있는 훌륭한 제재이다. 현실에서 발견할 수 있는 시각적인 성차별적인 상황을 제시하고 학생들에게 이에 대해 비판적으로 사고하고 토론하는 기회를 제공하여야 적극적이고 질적인 측면의 양성평등교육이 완성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미술교과서에서 양성평등적 요소를 점검할 수 있는 심의기준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양성평등교육 실현을 위한 연구는 계속해서 이루어져 왔지만, 교육부를 주체로 하여 양성평등적 관점에서 교과서를 분석하고 심의기준을 마련한 것은 2002년 7차 교육과정을 바탕으로 한 연구가 마지막이다. 뿐만 아니라 미술 교과서는 국어, 사회, 도덕 등을 기준으로 마련된 기준안으로는 교과서를 분석하고 심의하기 어렵다. 따라서 현행 교육과정과 교과서의 특성을 고려하여 양성평등적 관점을 바탕으로 한 심의기준안을 마련하고, 보급해야 한다.

## 참 고 문 헌

- 교주연. (2015). 2009 개정 교육과정 미술 교과서의 영역별 참고작품 분석연구.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 교육인적자원부. (2005). 초등학교 교사용 양성평등교육 지침서. 교육인적자원부.
- 교육인적자원부. (2007). 중학교 도덕 교과서 집필 기준. 교육인적자원부.
- 교육인적자원부. (2017). 2016년도 학생 건강검사 표본통계 분석결과. 교육인적자원부.
- 구정화, 박영석, 설규주(2012). 교과서 양성평등 제고를 위한 프로그램. 여성가족부.
- 곽삼근, 곽윤숙, 김재인, 나임윤경, 민무숙, 박성정, 송현주, 심미옥, 오재림, 유현옥, 이해주, 임선희, 정해숙, 조경원. (2015). 여성교육개론. 교육과학사.
- 김동영, 이경애, 민미순, 김경숙, 김외순, 윤민주. (2017). 미술 5-6. 아침나라.
- 김재춘, 왕석순. (1999). 제7차 교육과정에서의 양성평등교육실현 방안 연구: 5개 교과 양성평등수업지도 방안 개발을 중심으로. 한국교육과정평가원.
- 김진영, 이진재, 이해영, 조난심. (2010). 교과용 도서 국·검정 인정 구분 준거 및 절차에 관한 연구. 한국검정교과서.
- 류재만, 박미진, 김지현, 박미연, 박혜성, 김나라, 서주혜, 한수정. (2017). 미술 5-6. 천재교육
- 박은덕, 정선화, 정현화, 송혜원, 정윤성, 손영상, 최진주. (2017). 미술 5-6. 비상교육
- 심미옥, 추병완, 이주한, 서동엽. (2011). 양성평등교육. 도서출판 하우.
- 안금희, 장지성, 김서나, 이선희, 구경주, 이남근. (2017). 미술 5-6. 천재교과서
- 오재림, 정해숙. (2002). 양성평등관점에 기초한 제7차 교육과정 교과서 분석 및 교과서 심의기준 마련에 관한 정책연구. 교육인적자원부.
- 옥일남. (2015). 초·중등 양성평등교육 평가 지표 개발 연구. 서원대학교.

- 이규선, 김동영, 류재만, 전성수, 최윤재, 권준범, 김정선. (2010). 미술교육학. 교육과학사.
- 이은적, 김향미, 문은희, 박문수, 류청림, 홍희민. (2017). 미술 5-6. (주)금성출판사
- 이태신. (2000). 체육학대사전. 민중서관
- 장휘숙. (2010). 아동심리학. 박영사
- 정진경. (2006). 미술 교과서의 참고 작품 분석. 중앙대학교 교육대학원.
- 정해숙, 마경희, 최윤정. (2013). 초·중등학교 양성평등교육 활성화 방안.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채기범. (2004). 초등학교 사회과 교과서 삽화의 양성 평등 합성 분석. 한국교원대학교.

- American Association of University Women(AAUW)(1992). How Schools Shortchange Girls. AAUW Education Foundation.
- Biklen, S. K. & Pollard, D. (1993). Sex, gender, feminism, and education, In Sari K, Biklen(eds.). Gender and Education.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Sadker, D. & Sadker, M. & Long, L. (1997). Gender and educational equality. In J.A. Banks & C.A. Banks(Eds.). Multicultural education: Issues and perspectives. Needham Heights, MA: A Viacom Company.
- Stitt, B. A.(1988). Building Gender Fairness in Schools. Bord of Trustees, Southern Illinos University.
- Verloo, Mieke and Emanuela Lombardo. (2007). Contested Gender Equality and Policy Variety in Europe: Introducing a Critical Analysis Approach. Mieke Verloo(ed.) Multiple Meanings of Gender Equality : A Critical Frame Analysis of Gender Policies in Europe.

## A B S T R A C T \*

# 2009 Revised Curriculum Grades 5-6 Art Textbooks Analysis: From the perspective of gender equality education

Lee, Eun jin

Major in Elementary Practical Arts Education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Jeju National University**

Supervised by Professor Lim, Choon Bae

At a time when gender equality is being discussed as an important social issue, elementary education, including art education, is obliged to educate students to become members of society with healthy sexual consciousness. Since textbooks are mainly teaching and learning materials used in schools and have a large impact on students' attitudes and behaviors, it is important for students to formulate and produce textbooks from the perspective of gender equality to form the right attitude of gender equality. However, studies on gender equality education have been done a lot, but there are not many studies

---

\* A thesis submitted to the committee of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Jeju National University** in partial fulfillment of the requirements for the degree of Master of Education conferred in August, 2017.



that analyzed and criticized art textbooks from gender equality perspectiv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ompare textbook analysis standards from the viewpoint of gender equality education and to compare and analyze textbooks of grades 5-6 by the 2009 revised curriculum according to the standards. Based on the results of the textbook analysis, the following suggestions were made to improve the textbooks. First, the gender characteristics of the characters in the textbook should be described in various ways. Second, the characters of the characters in the textbook should be portrayed without regard for the sex role. Third, it is necessary to make efforts to reflect the ratio of female artists equally with that of male artists. Fourth, it is necessary to present gender-specific situations and suggest activities to improve gender equality consciousness. Based on these improvement directions, we expect that the art textbook based on the curriculum to be revised in the future will be able to develop not only the gender equality in the quantitative aspect but also the gender equality in the qualitative aspect

Key words: Gender equality education, Gender equality, Grade 5-6 art textbook, Analysis standard